

碩士學位 請求論文

家族體制에對한子女의知覺과情緒的不適應行動과의關係分析

指導教授 許 鐵 洙



濟州大學校教育大學院

教育行政專攻

康 承 厚

1991年度

家族體制에 對한 子女의知覺과 情緒的 不適應行動과의 關係 分析

指導教授 許 鐵 洙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2年 2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行政專攻

提出者 康 承 厚



康承厚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1992年 2月 日

審査委員長\_\_\_\_\_印

審査委員\_\_\_\_\_印

審査委員\_\_\_\_\_印

## 國文抄錄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는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행동이 가족체제에 대한 知覺 如何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假定을 전제로 하여, 자녀의 가족체제에 대한 지각과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양육태도 하위요인에 대한 知覺은 부모-자녀간에 차이가 있는가?
- 2) 정서적 부적응 행동 하위요인에 대한 知覺은 부모-자녀간에 차이가 있는가?
- 3) 양육태도 하위요인 및 정서적 부적응 행동 하위요인에 대한 부모-자녀간의 知覺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 4) 자녀의 정서적 부적응행동에 대한 부모의 知覺이 자녀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상의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도에 소재한 21개 국민학교의 1088명(남자:517, 여자 571)의 아동과 그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고,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家族體制에 대한 부모, 아동용 양육태도 지각 검사지와 부모, 아동용 情緒的 不適應 行動 지각 검사지이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Program을 이용하여 X, SD, t檢證, F檢證, r, 回歸分析을 통계처리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知覺은 愛情的 態도와 矛盾不一致의 면에 있어서는 부모가 자녀보다 더 높게 지각하고 있으나 반면에 拒否的 態도와 統制的 態度에 있어서는 자녀가 부모보다 더 높게 지각하고 있다. 또한 부모와 자녀간의 지각에 있어서도 愛情的, 拒否的 態度에서는 父는 자녀보다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반면에 統制的, 矛盾不一致 態度에 있어서는 자녀가 父보다 훨씬 높게 지각하고 있다.

둘째, 자녀의 不適應行動에 대한 부모, 아동의 지각은 하위요인 모든 행동영역에 있어서 부모는 자녀가 지각하고 있는 수준보다 훨씬 높게 지각하고 있고, 父母간의 지각은 攻擊行動, 強迫行動에 父보다 母가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아동의 성별에 따른 지각은 過剩行動 면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게 지각하고 있다. 전체 지각점수는 地域間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強迫行動에 있어서는 도시 지역의 부모, 자녀들이 읍면 지역의 그들보다 약간 높게 지각하고 있다.

셋째, 양육태도에 대한 부모 자신의 지각은 愛情的, 統制的, 溺愛的 態度와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자녀의 지각에 있어서도 모든 요인들간에, 그리고 자녀에 대한 父母의 不適應行動 知覺 要因間에 모두 有意한 相關이 있으며, 자녀의 不適應行動 要因間에도 모두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

넷째, 아동의 전체 부적응행동에 대하여 부모의 지각이 미치는 정도는 退行行動, 過剩行動, 強迫行動, 萎縮行動의 順으로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늘 자녀의 입장을 考慮하여 拒否的, 統制的, 溺愛的인 태도가 아닌 中庸을 택하여 父母와 子女間의 知覺의 差를 좁힐 때 情緒的으로 安定되어 家庭, 學校, 社會生活에서 원만하게 잘 適應할 수 있는 한 개인이 될 수 있음을 示唆해 주고 있다.

## 目 次

I. 緒 論 .....	1
1.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	1
2. 研究問題 .....	3
3. 研究의 制限點 .....	3
II. 理論的 背景 .....	4
1. 家族體制의 理論的 考察 .....	4
2. 情緒的 不適應 行動 .....	16
3. 家族體制와 情緒的 不適應 行動과의 關係 .....	21
III. 研究方法 .....	26
1. 標集對象 .....	26
2. 測定道具 .....	26
3. 資料處理 方法 .....	28
IV. 結果 및 解釋 .....	29
V. 要約 및 結論 .....	39
1. 要 約 .....	39
2. 結 論 .....	41
* 參考文獻 .....	43
* 英文抄錄 .....	48
* 附 錄 .....	51

## 表 目 次

〈표Ⅲ-1〉 조사대상 아동의 지역별, 성별 상황 .....	26
〈표Ⅲ-2〉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의 신뢰도 .....	27
〈표Ⅲ-3〉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 검사의 신뢰도 .....	27
〈표Ⅳ-1〉 양육태도에 대한 부모, 자녀의 지각간의 차이 .....	29
〈표Ⅳ-2〉 양육태도에 대한 부.모의 지각과 아동의 지각간의 차이 .....	30
〈표Ⅳ-3〉 부.모간의 양육태도 지각 차이 .....	30
〈표Ⅳ-4〉 양육태도에 대한 아동의 성별 지각차이 .....	31
〈표Ⅳ-5〉 지역별 부모의 양육 태도 지각 차이 .....	32
〈표Ⅳ-6〉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지역별 아동의 지각 차이 .....	32
〈표Ⅳ-7〉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대한 부모지각과 아동지각 간의 차이 ..	33
〈표Ⅳ-8〉 아동의 부적응행동에 대한 부.모간의 지각 차이 .....	33
〈표Ⅳ-9〉 아동의 부적응행동 지각에 대한 성별 차이 .....	34
〈표Ⅳ-10〉 아동의 부적응행동에 대한 지역별 부모의 지각 차이 .....	34
〈표Ⅳ-11〉 지역별 아동의 부적응행동 지각 차이 .....	35
〈표Ⅳ-12〉 양육태도 요인간의 상호관계 .....	36
〈표Ⅳ-13〉 부모와 자녀의 부적응 행동 요인간의 상호상관 .....	36
〈표Ⅳ-14〉 부모 양육태도 지각과 아동지각 양육태도간의 상호상관 .....	37
〈표Ⅳ-15〉 아동의 부적응행동에 대한 부모지각 요인과 아동지각 요인간의상호상관 .....	37
〈표Ⅳ-16〉 아동의 부적응행동에 대한 부모의 지각이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	38

## 圖 目 次

[ 圖 1 ] Symonds의 養育態度의 模型 .....	7
[ 圖 2 ] Schaefer의 아동 養育態度에 대한 假說的 模型 .....	11

1.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오늘, 우리들은 어린이들이 현재와 장래의 조화롭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교육의 효과와 질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어린이 교육의 質的 향상을 위한 要因들로는 가정, 학교, 사회, 교사, 학생, 교육내용 등 여러가지를 들 수 있으며,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다룰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데는 異議가 없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인은, 論者에 따라 관점의 차이는 있겠으나, 家庭이라고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인간은 가정에서부터 삶이 시작되어 가족관계와 가정환경속에서 성장한다. 즉, 인격형성의 기본작업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며 지능, 인성, 사회성, 도덕성 등에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또한 가정환경이기 때문이다.

Pestalozzi는 교육의 기초로서 가정의 기능에 대해 “人間教育에 있어서 家庭的의 知慧는 마치 나무의 즐기와 같다. 그 위에 여러가지 인간적 지식과 삶의 사명이 積重·積木 되어야 한다. 그런데 즐기가 시들고 약해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여 교육의 기초로서 가정을 강조하고 있고 (金丁煥譯, 1988), 金基錫도 가정환경을 통하여 어린이는 보다 더 큰 학교나 사회에 대한 태도와 適應 方式을 학습하고 사회적 태도, 정서적 통제 및 행동 습관을 조성하는 기초적 훈련을 가정에서 배우게 되며, 각 가정의 경제 상태,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성격, 가정분위기 등은 자녀의 성격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윤희상, 1974)고 했으며, 人性의 形成에 대해 가장 조직적인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 Erikson과 Freud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鄭元植, 1973).

그런데 우리 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의 향상, 산업사회가 대두됨에 따라, 가정환경이 제도적, 기능적인 면에서 크게 변모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결과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의 단절, 세대차의 문제, 개인의 고립 및 소외 문제, 物量的 價値風潮에서 오는 물질만능주의와 그에 따른 상대적인 人間性的 輕視 風潮 등이 더욱 膨大해 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실은 가정의 부모에게 不知不識間에 침투되어 가정의 심리적 환경의 變貌를 가져오게 되고 따라서 미래의 세대인 어린이의 성장과정에

그만큼 바람직하지 못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아졌으며, 생활 과정에서 또 부정적으로 상호작용할 蓋然性이 그 만큼 증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어린시절에 경험한것은 그의 후속되는 행동을 결정하는데 영향요인이 되게 된다. 특히 성장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족들과의 상호작용 중에서 부모-자녀의 관계는 자녀의 성격형성이나 지적발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Bronfenbrenner & Mahony, 1975 : Medinnus, G.R. (ed), 1967) 성격형성과 같은 자녀의 정의적 특성은 아동기에 부모가 어떤 방식으로 대하였나에 좌우된다.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녀가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가, 즉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실제 양육태도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비교적 잘 대해 주어도 자녀가 부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자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녀의 정의적 특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李鍾昇, 1982).

따라서 아동의 지각을 통해 얻어진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주관적 경험과 실제 부모가 양육태도에 대한 知覺에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假定이 성립될 수 있으며, 이런 가정과 아동의 심리적 특성 중 정서적 부적응 행동을 상호 연관시켜 보면 어떤 관련성을 발견하게 되리라 생각된다. 특히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에게 나타나는 심리적 특성이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가능한한 자녀의 심리적 건강발달면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을 조사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자녀의 양육태도에 관한 많은 연구들 대부분은 대상이 부모 또는 母, 아동의 知覺에 편중된 연구가 이루어져, 부모-자녀의 지각을 통합해서 수행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관련 영역도 정의적 특성 중에서 情緒的 不適應과의 관련 연구는 극히 드물었다.

대부분의 家族理論家들은 부적응행동의 원인, 발달, 유지에는 특정한 家族樣式과 過程 (family patterns & processes)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Jacob, 1975). 그러나 家族治療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론가들은 아동의 부적응행동이 가족 전체의 病理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가족체계의 어떤 측면이 不適應行動을 誘發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다른 견해를 발전시켰다 (朴性洙, 1979). 따라서 개별적인 이론들로부터는 家族體制와 아동의 不適應行動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에 많은 제한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 전체가 하나의 기능적인 단위로서 작용하는 家族過程(family process)이 아동에게 있어서 중요한 심리적 환경임을 강조

하는, 가족을 하나의 전체적인 체계로 보는 體制的 接近方式에 따라 Schaefer의 養育態度 假說의 모형을 부모-자녀간에 상호작용하는 한 체계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養育態度에 대한 父 또는 母 쪽에서의 知覺과 子女의 知覺과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2. 研究問題

위에서 언급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연구 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1) 養育態度 下位 要因에 대한 知覺은 父母-子女間에 差異가 있는가?
- 2) 情緒的 不適應行動 下位 要因에 대한 知覺은 父母-子女間에 差異가 있는가?
- 3) 養育態度 下位 要因 및 情緒的 不適應行動 下位 要因에 대한 父母-子女間의 知覺은 어떤 關聯이 있는가?
- 4) 子女의 情緒的 不適應行動에 대한 父母의 知覺이 子女의 情緒的 不適應行動과 어떤 關聯이 있는가?

## 3. 研究의 制限點



- 1) 本 研究는 濟州道內 國民學校 6學年 學生 및 學父母를 對象으로 하였다.
- 2) 家族體制的 網은 祖父·母-父-母-兄-弟-姉-妹 등 복잡한 下位體制로 構成되어 있을 수 있겠으나 父母-子女 關係에 限하였다.
- 3) 本 研究는 家族體制的 한 要因인 父母 - 子女間 양육태도만을 다루었으므로, 가족체계에 대한 해석에 한계가 있다.

## II. 理論的 背景

### 1. 家族體制的 理論的 考察

가족은 가족 구성원 각자가 각자가 하위체제로서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상호작용을 통하여 가족체제의 풍토를 조성하게 된다.

특히 부-모-자녀간 三元的 하위체제는 독특한 상호작용 방식을 지니게 되며, 이러한 방식의 독특성은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家族體制에 따른 부모의 양육방식의 類型과 特性들을 먼저 考察해 보고자 한다.

#### 1) 家族의 體制的 特性

가족을 하나의 社會體制 또는 機能的인 단위 (functional unit)로 보는 입장은 Bertalanffy(1968)의 一般體制理論(General Systems Theory)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Bertalanffy는 하나의 體制란 일련의 상호 관련된 要素들의 집합하여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이때 각 요소(부분)들은 서로 다른 요소들과 영향을 주고 받을 뿐만 아니라, 각 요소들은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다른 부분들과 안정된 방식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Burckley, 1967). 이와 같은 체제의 두가지 특성, 즉 相互因果性和 關係의 安定性은 바로 家族體制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된다.

구조적으로 볼 때 가족체제는 하위체제의 복잡한 網(a complex network of subsystems)으로 구성되어 있다 (Minuchin, 1974).

Minuchin(1974)은 가족을 하나의 사회적 단위체제로 볼 때 그 체제내부에는 가족구성원 각자가 하나의 하위체제가 되며, 夫婦, 父母-子女, 兄弟間의 二元的(dyadic)관계로 각기 하위체제를 이룬다고 하였다. 이러한 각각의 하위체제들이 특정한 位階를 이루어 최종적으로 하나의 全體로서 유지되는 것이 家族體制이다.

여기서 가족체제가 다른 체제들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이와 같은 하위체제들 간에 매우 높은 相互依存性을 가지고 있는 점이다 (Aldous, 1978). 따라서 어떤 하위체제들도 그것이 독립적으로 의존할 때와 전체체제 속에 있을 때는 서로 다르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母子의 二元的 하위체제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성격은 父가 함께 있는 三元的 체제 안에서의 상호작용 성격과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Feiring & Lewis, 1978).

이와같은 가족체제는 하위체제들 간의 상호연결적인 상호작용(interlocking interaction)을 통하여 情緒的 紐帶를 형성하며 그것은 체제에 安定을 가져다 준다. 이점에 대해 Foley(1979)는 “ 두 사람 사이의 情緒的 均衡의 強度가 너무 세거나 (intense) 너무 약할 때 (distant), 體制의 평형을 회복하고 안정을 얻기 위하여 제 3의 인물, 혹은 事象 (thing)이 개입할 수 있다”는 公理(axiom)로서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가족체제는 하나의 開放體制 (open system)로서 가족 外部와 계속적으로 投入(input)을 주고 받는 과정을 되풀이 한다. 이는 가족의 安定狀況 (A steady state)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Feiring & Lewis, 1978). 이때 同一-停滯性 (Homeostasis)이 의미하듯이 주어진 수준에서 체제를 유지하는 정체된 상태일 때 안정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安定狀態란 항상 어느 정도 변화하면서 체제를 스스로 유지하도록 하는 과정을 일컫는 말이다.

가족체제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下位體制들, 그리고 외부체제들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발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力動的이다. 따라서 가족체제 이론가들은 가족의 力動的 特性을 설명하고 진단하기 위해 凝集性(cohesion) 차원에서 離脫(disengage), 分離(seperated), 連結(connected), 얽힘(enmeshed), 그리고 適應性(adaptability) 차원에서 硬直(rigid), 構造化(structured), 柔軟(flexible), 混亂(chaotic) 등 여러 가지 概念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Riskin, 1972; Broderic & Pulliam-Krager, 1979; Olson, Sprenkle & Russell, 1979), 本 연구에서는 가족을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특성이나 一對一의 특정한 관계에 의해서 설명하기 보다는 가족 전체가 力動的인 관계를 가지면서 그 자체로서 有機體와 같은 ‘살아 있는 體制 (living system)’로 보는 점이며, 또 다른 하나는 가족체제 내에서의 아동은 단지 부모에 의해서 一方的으로 影響받는 被動的인 존재가 아니라 그 家族體制의 性格과 特性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能動的인 존재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때,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연구되어 온 양육태도에 대한 관점, 즉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또는 자녀가 일방적으로 받거나 느끼기만하는 쪽에서가 아닌, 相互 有機的인 體制로서 그 의미를 확대해석 할 수 있다.

## 2) 養育態度的 定義 및 類型

養育態度란 부모 또는 부모를 대신한 保護者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外現的·內現的 행동 및 특성을 의미하며 (李種昇, 1982), 知的, 情意的 特性으로서의 아동의 성격과 행동은 이러한

양육태도에 起因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南相仁, 1983). 또 Fishbein (1975)은 부모의 양육태도는 하나의 文化方式으로 부모가 자녀의 성장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權能이며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이라고 규정짓고 있다.

최근 많은 심리학자들이 인간행동의 原因을 어린 시절의 經驗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은 심리학에 있어 하나의 추세라고 하겠다.

Freud는 “영·유아의 경험이 그의 일생을 좌우한다”(S. Freud, 1910) 는 입장을 취한 사람으로서 그는 “요람에서의 경험이 潛意識化되어 후일 그의 행동을 좌우하는 원동력을 이룬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편, 1979)고 갈파하여 어린이의 人性은 주로 어렸을때의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이에 Erickson(1960)은 情緒發達의 첫 단계인 아동의 신뢰감은 어머니와의 좋은 관계를 통해 형성되고 이것은 자신감과 자아감을 갖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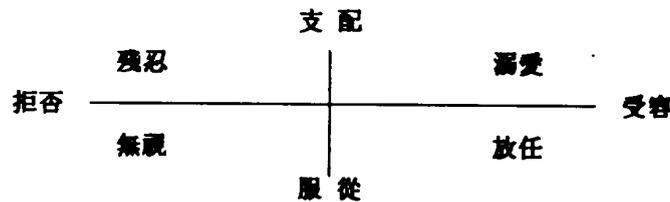
또한 Sears(1960)는 아동 個個人의 人性에 差異가 생기는 것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며 아동의 모든 행동은 그가 어떻게 키워졌는 나하는 부모의 양육방법의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劉永珠, 1980).

부모-자녀관계는 1910년 이래 Freud에 의해 체계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여 이제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중요성 및 가능성은 학자들과 관심있는 부모들에게 어느정도 인식되어졌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심리학, 사회학, 심리치료, 사회사업, 의학 등의 재분야에서는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졌다.

특히 Walters와 Stinnett에 의한 60년대와 70년대의 문헌연구는 부모-자녀관계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분명히 해 주었다 (J. Walters and Stinnett, 1971.). 즉 이 관계는 一方的인 모델이 아니라 상호적인 因果關係 모델로서 從屬變因과 獨立變因이라는 구조속에 적용시키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부모의 양육태도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類型化되고 있는데 처음으로 이론화한 사람은 Symonds(1949)이다. 그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受容 - 拒否, 支配 - 服從의 2개 차원으로 분류하고 <圖-1>과 같이 圖示했으며, 이러한 2개 차원을 다시 支配에는 期待型和 嚴格型으로, 服從에는 服從型和 溺愛型, 受容에는 干涉型和 不安型, 拒否에는 消極的 拒否型和 積極的 拒否型的 형태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가장 理想的인 부모의 태도는 中庸을 택하는 것, 拒否的, 支配的, 過保護的, 服從型도 아닌 중간을

취하는 태도가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 圖 1 > Symonds의 養育態度의 模型

또한 Schaefer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변화하므로 이에 대한 종단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Schaefer, 1959). 이러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부모의 행동을 경험적인 연구를 통하여 하위변인으로 구분하였고 이러한 서로 다른 개념들을 다시 간략한 概念的 構造로 압축시키고 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대개 愛情의 정도, 統制의 정도 혹은 期待의 정도 등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보편적이겠으나, 양육태도를 몇 개의 樣相으로 類型化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므로 여기에서는 학자들에 따라서 자녀의 양육태도에 대하여 유형화한 것을 본 연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 중 중요한 몇 가지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Baldwin(1955)은 부모 행동의 평정 척도를 제작하여 요인분석한 결과로 가정의 분위기를 民主的, 統制的, 溺愛的, 拒否的 家庭으로 유형화하였다.

Roe와 Siogelman(1963)은 愛情-拒否(loving-rejection), 非干涉(放任)-強要(要求)(casual-demanding), 關心(attention)의 세 차원으로 양육태도를 구분했다. 이것은 Becker가 분류분류한 차원과 비슷한 면이 있으며, 또한 여기에서 '關心'은 감정적인 情意的 次元뿐만 아니라 行動次元의 일면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Becker(1964)는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를 溫情-敵對(warm-hostility), 許容-制約(permissiveness-restrictiveness), 지나친 關心-침착한 傍觀(anxious emotional involvement-calm detachment)의 세 차원으로 나누고 있다. 이 중에서 지나친 關心-침착한 傍觀 次元은 情緒的 關與 및 情緒 表出이라는 점에서 볼 때, 溫情-敵對 차원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중첩될 가능성이 엇보인다고 할 수 있다.

Rosen 등(1964)은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를 關心과 無關心, 支配와 服從, 民主와 獨裁, 受容과 拒否 등 4차원으로 분류하고, 부모의 受容的인

태도는 아동에게 친절, 자신감, 안정성 등으로 나타나고, 受容의 缺乏은 혼란, 불안정, 반항, 및 무감동 등의 특징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Heibrun, Helen, Samuel 및 Harrel(1966) 등은 자녀훈련을 네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는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가 낮은 統制와 많은 愛情을 주는 형태는 肯定的, 受容的 態度이고, 낮은 통제와 적은 애정을 주는 형태는 부모가 자녀를 무시하고 無關心한 형태이고, 높은 통제와 많은 애정을 주는 형태는 過保護的 형태이며, 높은 통제와 적은 애정을 주는 형태는 拒絶的 형태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Jersild(1966)는 부모의 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수용적, 거부적, 익이적으로 구분하였다.

Cattell(1964)은 愛情-冷淡, 承認的-拒否的, 敵對的 加虐的-攻擊性的 不足, 嫉妬的-信賴的, 自負的-恥辱的, 社交的-非社交的, 保護的-冒險的, 依存的-獨立的으로 구별하였다.

Buss와 Plomin(1975)은 부모들의 양육태도의 결정요인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들의 氣質(temperament)과 깊이 관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그들은 부모가 지니는 恐怖 또는 憤怒의 정도에 따라 양육태도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공포심을 가진 부모는 육아에 자신이 없으며, 불안과 근심이 따르고 그것이 자녀에 대한 통제에 암시를 주고 자녀의 통제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통제하는 바와 같은 過小統制나 過剩統制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화를 내거나, 성미가 급한 부모도 자녀에게 분노를 나타내 拒否나 敵愾心으로써 전달된다는 것이다. 또, 衝動的인 부모의 태도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불일치 현상을 나타내고 변하기 쉽다. 즉, 자율적이었다가 통제하고, 애정적이었다가 거부적이되는 바와 같은 일관성의 缺如를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Alford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본질은 統制와 愛情의 두가지에 불과하며, 이 두가지가 짝지워지는 강도에 따라 4가지 (保護型: 높은 통제와 높은 애정, 拒否型: 높은 통제와 낮은 애정, 無視型: 낮은 통제와 낮은 애정, 受容型: 낮은 통제와 높은 애정)의 類型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李相魯, 1979).

그리고 우리나라의 吳起善(1965)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거부적태도, 지배적 태도, 보호적 태도, 복종적 태도, 矛盾不一致의 태도등 다섯가지로 나누었으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의 중요성에 비추어 父母-子女 關係診斷檢査를 제작하였다. 그는 이 검사에서 부모-자녀관계를 크게 5가지로 구분하였고 그것을 다시 각각 2개의 하위 유형으로 나누어 총 10개의 관계를 정의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거부적인 태도

- 가. 소극적 거부형: 자녀에 대한 무관심 방임 惡感情 등이다.
- 나. 적극적 거부형: 자녀에 대한 체벌, 학대, 굴복, 가혹한 요구, 보호양육의 책임 방기와 같은 태도

② 지배적인 태도

- 가. 엄격형: 자녀에 대하여 애정은 있으나 늘 엄격, 완고, 비판 감독하는 태도
- 나. 기대형: 부모의 요구·아심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태도, 자녀의 소질, 능력, 적성, 희망을 무시하고 부모가 요구하는 방향과 수준으로 따르게 하는 태도

③ 보호적인 태도

- 가. 간섭형: 기대형과 같은 부모의 감정이며 자녀를 위해서 너무 사소한데 까지 간섭하여 조력을 하거나 지시하려고 한다.
- 나. 불안형: 자녀의 일상생활, 건강, 교우관계, 장래의 진로에 대하여 지나치게 걱정하고 불안하고 필요 이상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지나친 원조와 보호를 하려는 태도

④ 복종적 태도

- 가. 익애형: 지나친 사랑으로 자녀를 옆에 두고 시중드는 것을 가장 즐거움으로 알고 잘한 일이나 못한 일이나 너그럽게 봐주는 태도.
- 나. 맹종형: 모든 권한을 자녀에게 주고 부모는 어떤 희생을 지불하더라도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는 태도

⑤ 모순·불일치적 태도

- 모순형: 자녀의 동일한 행동에 대해서도 문책과 금지가 일치하지 않는 태도, 일관성이 결여된 태도

그리고 李元寧(1983)은 온정-냉정, 과보호-방임, 허용-계약, 안달-태평의 4개 차원으로 분류하였고, 韓宗憲(1980)는 애정·수용-적대·거부, 민주·

자유-권위-통제의 2개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양육태도의 유형들은 한 두가지의 기본적인 차원에서 용어상의 차이를 볼 수 있지만, 몇 개의 유형을 중심으로 구분해보면 類似的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Becker의 온정-적대, 허용-제약, Roe와 Siegelman의 애정-거부, 지배-복종, Alford의 애정과 통제, Symonds의 자율-통제, 애정-거부, Rosen의 관심-무관심, 지배-복종, 민주-독재, 수용-거부 차원 등을 위주로 한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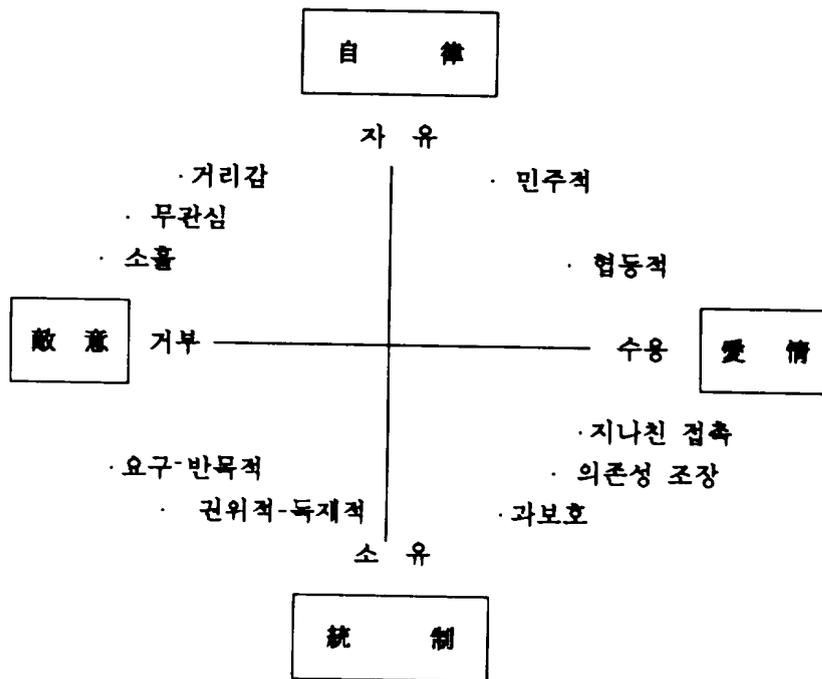
부모가 자녀에게 대하는 태도는 결국 사랑의 정도와 통제의 정도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자들의 이론적 모형에 대한 타당성을 비교하기 보다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보다 적합하고 포괄적인 모형을 적용하여 이에 대한 부모의 지각과 자녀의 지각 차이에 따른 그들의 정서적 부적응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부모의 양육태도의 모형으로는 위의 유형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다루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과 '통제'의 정도에 기초를 두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종합 정리해본 양육태도의 유형들은 위의 연구들 중에서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Schaefer의 양육태도에 대한 假說的 圓形模型(Schaefer, 1959)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변인에 Schaefer의 모형을 적용하였다.

Schaefer는 양육태도의 모형을 크게 사랑-적대(love-hostility), 자율-통제(autonomy-control)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의 양육방식에 관한 假說的 圓形模型(circumplex model)은 자녀 양육에 관련된 여러가지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고 변인들 중에서 서로 밀접하게 관련있는 요인과 서로 대립되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각 변인의 위치를 圓形圖에 나타낸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圖 2]와 같다.

[圖-2]의 양육태도 모형을 보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것이 적대적이고 거부적인 것보다, 그리고 자율적인 것이 통제적인 것보다 그들의 자녀에게 더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 圖 2 ] Schaefer의 아동 양육태도에 대한 가설적 모형

그림에서와 같이 애정-자유 사이의 양육태도와 적대-통제 사이의 양육태도는 각각 민주형과 독재형으로 대조를 이룬다. 그리고 애정-통제 사이의 양육형태와 적대-자유 사이의 양육태도는 각각 익애형과 방임형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吳聖心, 李鐵昇, 1982).

Mussen 등(1969)은 愛情-敵意的 次元에 있어서 愛情的인 부모는 일반적으로 수용적, 애정적, 인지적이고 이해를 잘하며 幼兒中心의이다. 또한 설명을 자주 사용하고 의존적 행동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調育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를 사용할 뿐 아니라 칭찬을 적절하게 하며 체벌을 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敵意的인 어머니는 일반적으로 愛情的인 어머니의 특성과 반대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양육태도를 분류하는 유형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많은 학자들에게 지지되고 있는 것이 Schaefer(1959)의 분류 유형인 애정-거부, 자유-통제인데 이와같이 분류하는 假定에 대해 Kinster(1961), Mussen, Conger, & Kagan(1969), Becker(1964), Medinnus(1967), Hurley(1965)등은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이에 (金英

淑, 1988)은 Schaefer의 부모 양육태도의 두 축을 근거로 삼아 연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愛情-自律的인 태도는 양육태도로서 가장 권고할 만한 것이며 이러한 태도를 지닌 부모 밑에서 자란 유아는 능동적, 외향적이고 독립적이며 사회적 용을 자신있게 하며 사고적이고 창의적이며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 적대감이 없다고 한다.

愛情的-統制的 태도는 애정을 주면서도 자녀의 행동에 제약을 많이 하는 태도로 애정적-자율적 가정에서 자란 유아보다 더 의존적이고 사고성, 창의성이 적은 편이며 상상적인 적대감을 품는다고 한다.

拒否的-自律的인 태도는 자녀를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동시에 자녀 마음대로 행동하게끔 하는 부모의 태도로 이러한 부모에게서 성장한 어린이는 공격적이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한다고 한다.

拒否的-統制的 태도는 자녀를 따뜻하게 용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행동을 처벌 또는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태도로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어린이들은 자아에 대한 분노와 내면화된 갈등, 고통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한다.

### 3) 父母의 養育態度에 대한 子女의 知覺

知覺이라함은 外界에의 適應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창문이며 環境內의 事物을 認知하는 심리적 과정을 뜻한다(最新 敎育學大辭典)

인간의 知覺向性은 行동을 규정하는 요인으로서 심리학적, 교육학적으로 여러 접근을 통하여 그 개념이 설명되고 있으며, 知覺向性이란 인간이 자신과 사물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는가하는 내용의 경향을 의미한다(崔正薰, 1980).

Combs와 Snygg(1959)는 “모든 行動이란 예외 없이, 행동하는 사람의 知覺의 場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行動이란, 행동하는 者의 自我, 他人 및 環境에 대한 主觀的 知覺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것이다. 인간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지각이 없거나 또는 자기의 도움을 필요로하는 타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자기의 행동은 항상 부정적이고 사회생활과 자기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知覺에 관한 문제는 발달심리학 및 성격심리학에서 뿐만 아니라 상담심리

학과 정신위생 등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 지고 있으며, 더구나 인간은 계속적인 성공의 경험 혹은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되는데, 특히 아동기에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러한 자아개념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때이므로, 그들의 행동, 성격 및 정신건강 또한 중요한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입장에서 볼 때 실제의 양육태도와는 달리 여러가지로 知覺될 수 있다. 즉 아동이 부모의 태도를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아동자신의 여러 요인 및 복잡한 심리적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들의 실제태도와 반드시 일치될 수는 없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조사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edinnus(1965)는 부모의 실제 양육태도와 이것을 받아들이는 아동의 지각간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청년들의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를 그들의 자아수용과 관련지워 지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자아수용감이 낮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려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다른 연구에서 범죄소년 집단과 일반소년 집단사이의 부모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범죄소년 집단은 아버지에게 대해 특히 拒否와 無視의 차원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Rosen(1964)은 중류층의 소년들은 하류층의 소년들보다 그들 부모의 능력을 비교적 긍정적인 방향에서 훌륭하고 폐기만만한 것으로 지각한다고 했다. 반면에 하류층의 소년들은 그들의 부모를 소심하고 초초해하는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들이 이러한 방식을 받아들이는 知覺의 傾向性에 따라 다르게 認知된다. 따라서 知覺된 性向들은 아동의 행동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점에 대해 Schaefer(1965)는 부모의 실제행동보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이 자녀의 적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양육태도에 대한 子女의 知覺과 適應과의 관계를 柳永喜(1979)의 연구에서 살펴보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敵對的인 관계는 부적응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며, 愛情 차원에서는 男兒가 아버지에게 대해, 그리고 女兒가 부모에 대해 愛敬적으로 높게 지각할수록 잘 적응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金率植(1979)은 사춘기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태도와 자녀의 장래전망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의 태도가 민주적, 수용적이고 부모-자녀간의 친숙도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자녀의 장래전망은 밝으며, 특히

민주적인 부모의 태도가 가장 긍정적이며, 전체적일수록 자녀의 장래전망은 어둡다고 하였다.

楊惠勝(1973)은 “아동이 지각하는 양육자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개념과의 관계”에서 애정 차원은 자아개념의 모든 차원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으며, 관심 차원도 여아집단을 제외한 집단에서 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방임 차원은 자아개념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李永愛(1973)는 “부모의 對人觀 및 子女觀이 자녀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에서 도시 중류층의 부모는 도시 하류층에 비해 자녀에게 애정적 행동을 많이 취하고 있고, 도시 중류층의 부모는 도시 하류층 및 시골 집단층과 비교하여 더 방임적 양육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하였다.

윤희상 (1974)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과의 관계”라는 논문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 차이는 부모의 인식과 행동의 불일치로 인한 차이, 부모와 자녀의 세대적 차이로 인한 隔差로 보았으며, 자녀의 상대적 태도평가에는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아들에 대해서 보호와 복종에서 더 거부적이고, 딸에 대해서도 지배, 보호, 모순, 불일치 등에서 모두 부정적인 형태로 나타났다고 보았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부모의 태도를 아동이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실제적인 영향이 좌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같이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 4) 養育態度에 대한 知覺의 一致와 不一致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의 일치와 불일치에 있어서, 金在恩 (1974)은 양육태도의 불일치란 세 가지의 다른 의미가 含意되어 있다고 했다. 그 첫째가 “父母間 不一致型”이고, 둘째는 父 또는 母의 養育方法 및 철학의 一貫性 缺如, 즉 “父母內 不一致型”이며, 셋째는 “混舍型”을 들고 있다.

양육은 부모의 정확한 가치판단 위에서 해야 한다. 만약 부모가 서로의 가치기준이 같지 않다면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가정내에서는 二重價値가 생기게 되고, 이것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더욱 좋지 못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와같이 양육태도의 一致與否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 일치의 방향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 아동의 정서적 행동에 正,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

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父母間 養育態度의 不一致가 子女에게 미치는 影響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aruch(1949)는 자녀들의 행동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행위 자체만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도 함께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자녀들의 욕망은 부모의 엄격한 가정훈육방법에 의해 좌절되기도 하지만 부모들이 주는 벌의 빈도가 지나치게 잦은 경우에는 욕구불만으로 인해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쉽다고 했다. 이 말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矛盾이 없어야 함을 일컫는 것으로, 부모가 얼마나 합리적인가 아니면 비합리적인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Ilg(1955)는 자녀양육에 있어서 부모간에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이들 앞에서 한쪽 부모의 양육방법을 다른쪽 부모가 支持하지 않거나 비평한다면, 이 부모들은 양육에 실패하고 말 것이라고 했다.

또한 Mussen과 Conger(1956)는 자녀양육에 있어서 協力 不足에서 오는 부모간의 緊張 그리고 支配 및 服從의 不一致는 아동의 부적응과 관련이 높다고 하였다.

品川(1958)은 Aichhorn의 연구를 인용하여 부모의 태도가 矛盾·不一致일 때 많은 不良兒를 낳게 하고 있으며, 또한 母親이 지배적이고 父親이 從屬的일 때는 일반적으로 女兒는 母親과 같이 남성적이며, 男兒는 父親을 닮아 女性의인 경향이 되어 간다고 말하고 있다.

또 Winder와 Rau(1962)는 思春期前 男兒를 대상으로 양육태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사회적인 면에서 異常性格인 아동의 부모는 一貫性이 없고 不一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張秉琳(1965)은 불일치란 일관성을 결한 태도로서, 아동을 일정형으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하였으며, 모순적 태도와 불일치적 태도로 나누었다. 모순적 태도는 주로 변덕형으로서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고, 불일치적 태도란 양친의 태도가 반대의 경우로, 아동측에서는 항상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고 했다.

Coe(1972)는 부모의 행동이 不一致하면 할수록, 아동은 그만큼 더 갈등과 욕구불만, 不適應 등으로 고통을 받기 쉽다고 했으며, Perking(1974)은 부모간의 불일치는 아동의 성격발달에 해로우며, 아동으로부터 자신의 행할 행동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

安鑽(1979)은 가정에서의 교육방법이 부모사이에 일관성과 일치성을 이룰 때, 자녀들은 양친을 존경하게 되고 가정에 대해 애정을 쏟으므로 바람직한

情意的 교육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부모 양육태도의 一致度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全敬淑(1980)은 地域과 教育水準을 들고 있다. 즉 도시의 부모와 고학력 부모는 肯定的 一致度가 높게 나타났으나, 農村의 부모와 저학력 부모는 否定的 一致度가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상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양육에 있어서 一貫性이 있고 하나의 뚜렷한 價値觀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점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부모는 부모 상호간 자녀에 대한 이해의 일치도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일관성 있게 자녀양육방식을 견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父-子 관계에서의 母의 역할, 母-子 관계에서의 父의 역할을 중시하여 자녀양육에 일치를 기하고, 또 그 일치는 肯定的인 方向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아, 본 연구에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일치여부와 아동의 情緒的 不適應行動 하위 要因들과의 관련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올바른 자녀 양육을 위해 매우 의의 있는 일로 생각된다.

## 2. 情緒的 不適應 行動

아동은 諸 形態의 인지적, 정서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부적응 행동과 관련하여 볼 때 認知的 요인보다 情緒的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정서적 부적응의 유형과 특성을 살펴보고, 정서적 부적응을 誘發하는 요인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 1) 情緒的 不適應의 定義 및 特性

情緒의 개념은 모호하여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情緒란 유기체가 내적, 외적 자극을 받았을 때 갖는 희, 노, 애, 락 등과 같은 쾌, 불쾌를 수반하는 의식상태를 말한다. 정서는 비교적 심한 생리적인 반응을 수반함으로써 인간 행동의 원동력이요 인격형성의 주요 특질로서, 작용할 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직접 영향을 줌으로서 인간을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은 계속적인 육구의 추구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출생에서 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인간은 자기의 신체적, 생리적인

욕구와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간다. 이러한 삶은 행동으로 표현되며 인간의 행동은 反射的인 행동과 有目的的인 행동으로 대별될 수 있으며 유목적적인 행동이란 요구추구를 위한 동기적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인간 대부분의 행동은 어떤 욕구만족을 목표로 하여 그 욕구에서 생긴 緊張을 解消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인간 행동의 원동력은 욕구인 것이다. (임형진, 이시용, 1990)

그러나 인간의 욕구는 충족되기도하지만 여러가지 조건에 의하여 지연되기도 하고 전혀 충족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때 유기체가 자기의 욕구와 환경 사이에 조화를 구하여 그 욕구를 만족시키는 과정을 우리는 適應 (adjustment)이라고 하며, 이런 과정에서 분노, 공포, 환희와 같은 감정이 분화된 상태로서, 정서적으로 자극된 상황에 있을 때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특정한 신체적 변화와 동기화된 행동을 수반하게 된다. 여기에서 자신의 성장과 발달면에서 이탈된 행동을 하는 것을 情緒 不適應行動이라 하는 것이다. (김형호, 1978)

Kauffman(1973)은 情緒 不適應을 다른 사람의 期待나 그들 자신의 기대에 맞지않게 행동하는 것이라 정의하였고, Gearheart와 Weishan(1976)은 정서 부적응을 아동자신의 긍정적인 자아발전과 남들과의 관계에 해를 끼치는 영향을 주거나 退行된 행동을 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또 鄭元權(1977)은 욕구 충족이 방해받을 경우 個體가 환경에 따라 욕구를 적절히 조절하거나 융통성있게 처리하지 못하고 異狀反應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행동을 부적응행동이라고 하고 있다.

한편 정서적 부적응아를 크게 정서 불안정아와 사회 부적응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먼저 Dunn(1969)은 정서 부적응아를 정서 불안정아와 사회 부적응아로 분류하면서 情緒的 不安定兒는 정서적 불안으로 인하여 일반 학급에서 잘 적응할 수 없으며 攻擊이나 退行的 행동을 보이며 심리적인 압축으로 자기에게 기대된 것을 할 수 없는 아동이라 하고, 社會的 不適應兒는 사회의 가치관과 법칙을 무시하고 그 대신 친구들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만성적인 소년 범죄자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한편 Kirk(1972)에 의하면 정서 불안정아를 자신의 성장과 발달면에서 離脫된 행동을 나타내는 장애자로 보고 사회적 부적응아는 타인에게 방해와 불안의 요인이 되는 행동을 나타내는 障礙兒라고 분류,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류 차원에서 같은 견해를 지니는 입장으로서 Barbe(1963)는 情緒 不安定은 반사회적이 아닌 신경증, 심리학적면이 포함된다고 봄으로

써 이것은 심리학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보고 사회적 부적응은 청소년 비행을 포함하여 이는 사회학적인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였다.

한편 Freud는 정신분석 이론의 관점에서 정서부적응 행동을 Id, ego, superego를 포함하는 개개의 정신구조가 갈등을 일으키는 증상이라 하였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어린이들은 이 세가지가 서로 비교적 조화있게 작용하여 개인의 필요한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비해서 이 세가지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면 그 아이는 정서적 부적응아가 된다고 하였다. (Kirt, 1972)

이와 같은 여러 관점에서 본 견해를 종합하여 내린 정의로는 Bower의 정의를 들 수 있다. Bower(1969)는 정서부적응을 다음의 특성을 어느 기간 동안 하나나 둘 이상 나타내는 행동이라 하였다.

- ① 지적요인, 감각적 요인과 건강요인은 정상인데도 學習障礙가 있다.
- ② 친구나 교사와의 만족스런 인간관계를 이루거나 持續할 수 없다.
- ③ 정상적인 상황인데도 행동이나 감정이 부적절하다.
- ④ 아동 자신이 불행이나 억압감을 느끼며 남들에게도 그렇게 영향을 준다.
- ⑤ 신체장애, 고통이나 두려움을 개인적인 문제나 학교문제에다 관련시키려고 한다.

즉 Bower(1969)는 정서부적응을 환경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하여 갈등을 일으켜 주위사람들과 원만하게 행복한 대인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없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情緒的 不適應 行動이란 情緒的 不安定과 心理的 動搖로 인하여 人性的, 社會的, 敎育的으로 적절하게 적응을 하지 못하고 葛藤을 일으키는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 行動이라고 定義할 수 있다.

또한 情緒的 不適應行動이란 정상적인 知的 能力이 있어도 不適切한 환경의 영향으로 잘 적응하지 못하는 행동으로서 環境과의 不適切한 관계로 인하여 葛藤을 일으켜 주위 사람들과 원만하게 행복한 人間關係를 이루어 나갈 수 없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 2) 情緒的 不適應 行動의 分類

정서적 부적응아의 행동은 그 특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분류하는 기준과 용어에는 학자마다 약간씩 그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Kirt(1972)는 정서적 부적응 행동을 공격적 행동, 퇴행적 행동, 신체적 징후, 위축되거나 고립된 행동, 두려움의 표현의 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Rosen과 Gregory(1972)는 행동장애, 신경질적 특징, 관습적 장애의 3가지로 분류하였으며, Reiner(1976)는 많은 교수들의 경험과 학급에서의 관찰을 통해 정서적 부적응 행동을 4가지로 분류하였는데 때리기, 공격성, 파괴적 행위를 보이는 過剩行動, 침묵, 손가락 빨기, 제한된 행동을 나타내는 萎縮된 行動, 거짓말, 속이기, 일회피 등의 防禦的 行動, 自廢的 行動, 현실회피의 混亂된 行動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Hewett & Jenkins는 정서적 부적응아를 사회적인 공격적 아동, 사회화된 공격적 아동, 지나치게 수줍어하고 민감하며 고립적이고 위축된 아동으로 분류하였다.(Jersild, 1966)

이와같은 정서적 부적응 행동 특성을 분류한 몇가지 연구들을 종합하여 Quay(1972)와 그의 연구진들이 교사와 부모에 의한 行動 評定, 아동의 生育史 特性, 질문지에 대한 아동의 反應을 근거로 하여 4가지 행동 특성으로 나누었다. 즉, 行動障礙, 性格障礙, 未成熟, 非行으로 분류하여 각기 행동 특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최근 Achenbach(1978)는 아동의 행동을 경험적인 배경에 두고 문항을 작성하여 요인분석을 위해 남녀별, 연령별로 분류를 하였다. 그 분류의 내용은 성별, 연령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分裂的 行動 (Schizoid), 憂鬱行動 (Depressed), 言語不足行動 (Uncommunicative), 強迫行動 (Obsessive-Compulsive), 社會的 萎縮行動 (Social withdrawal), 過剩行動(Hyperactive), 攻擊行動 (Aggressive), 非行 (Delinquent)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정서적 부적응의 행동은 어떤 기준하에서 몇 개의 범주로 나누어 어떻게 분류하느냐의 문제는 학설이나 학자들 사이에 견해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러한 행동 특성이 따로 분리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행동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여 때로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은 有機的, 因果的인 밀접한 상호 관계를 가져 確然하게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표출되는 증상만 가지고 기계적으로 분류되거나 이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사례별로 生活歴과 형성과정 그리고 증상과 원인간의 相關性등 보다 폭넓게 因果的·力動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3) 情緒的 不適應에 관한 先行研究

정서적 부적응아에 대한 연구를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교육적 관심, 배려 면에서 저조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정이다.

정서적 부적응아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로는 Dunn(1969)을 들 수 있는데 그에 의하면 정서적 부적응아는 학교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호(1978)의 연구에 의하면 정서적 부적응 아동은 학교에서 사회적 고립 현상을 보이는 고립이 가장 많음을 (40.5%)보여 주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尹點龍(1982)의 연구에서도 역시 정서적 부적응 아동은 미성숙으로 인한 지적 능력 부족과 학업 성취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감의 부족으로 인한 협동력과 사회 적응력이 정상아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父의 직업에 따라서도 정서적 부적응아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Bower(1969)의 연구에 의하면 父의 직업이 전문직, 행정관리직인 가정보다 기능공, 생산공 및 서어비스직인 가정에서 정서적 부적응아가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외의 여러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이은(1981)은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原因으로 ① 개체의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② 건전하지 못한 정서적 경험을 했을 때, ③ 바람직하지 못한 가정조건, ④ 교육적 원인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원인으로 나타나는 정서적 부적응의 形態는 ① 학업부진 및 학교에 대한 부적응 태도, ② 사회적 고립, ③ 반사회적 행동, ④ 과민한 감정의 표현, ⑤ 지나친 自己卑下와 自己誇示의 행동, ⑥ 가벼운 신체적 이상 현상등을 들고 있다.

Quay, Morse, Cutle(1966)는 이러한 정서적 부적응의 행동특성의 연구 등을 종합하여 행동장애, 성격장애, 부적절한 미성숙의 3가지 행동 유형으로 발전시켰다.(Kirk, 1972)

좀더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Gearheart 와 Weishann(1976)은 정서적 부적응아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적대적인 공격, 환상으로서의 運行, 완전주의, 퇴보, 억압, 비현실적인 공포병, 복통과 두통 사건을 자주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정서적 부적응의 정의, 특성 및 원인에 따른 정서적 부적응아에 대한 판별은 여러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주로 敎師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해 주고 있다.

Robis, Bower등에 의하면 학교에서의 정서적 부적응은 敎師가 가장 敎果的인 役割을 한다고 하였고 Ullmann 은 교사 못지 않게 학급, 동료들의 판단도 정확하다고 하였다. (김인자, 1980)

그러나 정서적 부적응아에 대한 판별은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기업가,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의 공동작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Dunn, 1969).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서적 부적응은 주위 여러 환경과 문제를 일으켜 공격적이거나 퇴행된 행동을 보이며 미성숙한 정서를 가지는 것으로서 부모와 교사와의 공동 노력하에 정상적인 정서발달로 방향지워야 할 것이다.

### 3. 家族體制와 情緒的 不適應 行動과의 關係

아동의 접하게 되는 환경은 가정, 학교, 사회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중 가정환경은 출생시 부터 아동과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아동의 성장, 발달에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가족체계 중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성장,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 (李鎔順, 1984)

이러한 사실은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것으로써 Baldwin의 연구가 이를 뒷받침한다. Baldwin(1945) 은 가정을 민주적, 전체적, 익애적, 거부적 가정으로 나누고 그에 따른 아동의 인성특성을 연구하였는데 民主的 家庭의 아동이 가장 긍정적이고 안정된 情緒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근후 등(1988)은 母性的 過剩保護 (maternal overprotection)가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면서 익애형 과보호는 부모가 자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무엇이든 들어주고 행동적 제한을 두지 않으며 항상 걱정하고 자식이 하자는 대로 했을 때, 이런 환경의 아이들은 나중에 자기억제를 못하고 과잉 공격적이 되어서 행동장애로 발전할 경우가 많다고 했다. 또한 지배형

과보호는 부모가 아이들의 행동을 과잉통제하고 일일이 간섭하고 명령하여 그 아이들은 복종적이고 의존적이며 피동적이 되고 자신의 자율성이나 독립성 및 자기주장을 하는 일이 없는 경우가 많게 되어 나중에 자신이 없고 萎縮된 아이들로 발전하고 그 안에는 抑壓된 憤怒 및 憎惡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受動攻撃的으로 표현되는 수가 많다고 했다.

이 밖에도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그들 자녀의 성격 및 정서적 특성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Lewin(1957)은 “아동 양육의 모형”이라는 연구에서 아동의 성격형성에 어머니의 태도, 애정의 표현방법이 중요한 문제이며 지나친 부모의 보호나 처리가 어린이의 의존성과 거부적 성격을 조장시키고 공격적 또는 小心한 성격으로 길러 준다고 주장하였다.

石黒(1957)의 연구에서는 거부적인 가정의 자녀는 부모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부모에 대해 敵意를 품게 되는 것이며, 反抗的, 攻撃的인 경향이 형성되기 쉬우며, 또한 가정의 불화 때문에 신경과민이 되며, 백일몽 등의 부적응증상이 나타나기 쉽다고 했다.

品川(1958)은 Lafore의 연구를 인용하여 保護型 밑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성숙이 늦어 진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회적 성숙을 위한 훈련의 기회를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아동은 아주 依存性이 강하여 困難을 克服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며, 활발한 友人關係 성립되지 않으며 고립되기 쉽다고 한다.

Bandura 등(1959)은 공격성을 보이는 소년의 집단에서 拒否, 敵愾心의 父子關係가 두드러짐을 발견했다.

Slater(1962)는 부모가 拒否型과 矛盾型인 아동은 衝動的이 되고, 부모가 온정적이고 애정에 넘치고 활발하고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社會的으로 安定되며, 부모가 관용적 일수록 아동의 自我가 보다 強化된다고 하였다.

Baldwin(1964)은 부모로부터 拒否된 어린이들은 情緒的으로 不安定하게 되어 사람에게 대한 신념을 상실하게 되고, 비합리적인 파괴행위를 일삼게 되는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부모의 태도가 溺愛的일 경우 아동의 성격은 정서적으로 역시 불안정하며 意氣가 없고, 버릇없는 제멋대로이며, 자기중심적이 되기 쉬우며, 또한 집단생활에서 종종 부적응 상태를 일으키기 쉽다고 하였다.

Sear(1960)등은 受容과 愛情의 霧圍氣에서 자란 아동은 부모에 대한 신뢰

의 성장과 일반화 되게 되어 남을 사랑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또한, 자기 방어의 필요도 느끼지 않게 되기 때문에 행동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개방적이고 솔직하게 된다고 한다. 반면 심한 拒否의인 雰圍氣에서 성장한 아동은 자기방어를 위해 뒤로 물러서게 되며 자신을 방어하면 할수록 더욱 외부 세계와 벽을 높이 쌓게 된다고 한다. 또한 父母의 過剩保護의 態度는 아동에게 탐험의 기회를 갖게 하지 못하므로 일종의 拒否와 同一하다고 하였다.

金箕斗(1967)는 한국 소년범죄 연구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조사연구를 통해 父 - 子間 무관심, 거부(적대)적인 관계에서 반수 이상(88명중 46명인 52.8%)의 비행소년이 나왔으며, 母 - 子間 溺愛, 무관심, 거부적인 관계에서 無非行者에 비해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고 하였다.

또 Rosen(1972)은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를 관심과 무관심, 지배와 복종, 민주와 독재, 수용과 거부등 4차원으로 분류하고 부모의 受容的인 태도는 아동에게 친절, 자신감, 안전성 등으로 나타났고, 受容의 缺乏은 혼란, 불안정, 反抗 및 無感動 등을 특징으로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

Hurlock(1978)은 受容的인 태도를 갖고 있는 부모의 자녀들은 사회화 및 협조가 잘되고 상냥하며 명랑한 편이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하였다. 반면에 Rodke는 權威的인 家庭에서 자란 아동이 민주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동보다 다른 아동들과 잘 싸우는 편이며 칭찬과 비난에 더 민감하며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편이라고 하였다. (Rosen, 1972)

또한 吳起善(1965)은 權威的이고 支配的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동은 意氣喪失, 冷淡, 無感動하여 생활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어진다고 하였으며, 韓宗憲(1980)는 부모의 인성 및 양육태도와 아동기 자녀의 인성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父母의 人性은 養育態度 및 자녀의 인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었다고 보고하였다.

慎鏞日(1982)은 어린이의 원만한 인성형성의 뒷받침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전개되는 건전한 인간관계이며, 부모의 태도는 곧 자녀에게 반영되어 자녀의 인성형성에 영향이 크다고 했다. 가령 부모에게 배척당하는 자녀들은 감정과 소속의 욕구가 저지되어 심한 욕구불만에 빠지게 된다. 그 결과 대개 拒絶癖, 鬭爭癖, 反抗性, 不誠實 등의 習性이나 人性이 형성되기 쉽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문제시되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윤희상, 1974).

- ① 拒否型의 부모 : 공박, 차별대우, 학대, 벌, 잔소리 등 부모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태도로 이것은 아동을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으로 그러한 부모의 태도에 의해서 아들은 애정이나 주목을 얻으려고 하는 행동, 공격적인 행동, 이상행동, 소극적태도가 일어난다.
- ② 溺愛的인 부모 : 맹목적인 애정으로 아동을 대하는 형으로 아들은 자주성 의식이 없어지고, 고집과 의퇴심이 세며, 마음이 약하여 곤란을 이겨나갈 수 없는 약한 어린이가 되며, 청년기가 되면 성문제를 일으키기 쉬운 형으로 된다.
- ③ 過保護型의 부모 : 지나친 걱정으로 불안한 부모인데 이는 아동의 활동을 너무 제한하므로 신경질적이며 의퇴심이 강한 열등감의 아동이 되기 쉽다.
- ④ 嚴格型의 부모 : 부모의 압력이 지나쳐서 금지, 비판, 지배, 권위등으로 자녀를 취급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面前에서는 복종을 하지만 內心은 반항적이 되고,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후에 性格障礙를 일으키거나 열등감을 가지거나 반항적이되어 가출해 버릴 가능성이 많게 된다.
- ⑤ 期待型의 부모 : 자녀의 능력향상을 기대하거나 부모의 불만을 자녀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잔소리, 재촉, 엄격 등으로 대하게 되고 저항형의 아동, 공부하지 않는 아동이 되기 쉽다.
- ⑥ 矛盾型의 부모 : 일관성이 없는 교육으로 거부와 익애, 과보호와 기대 등이 뒤섞여 있어 아동은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고 불량한 신경증적 성격이 되기 쉽다.
- ⑦ 不一致型의 부모 : 부모의 태도가 불일치한 것으로 즉 아버지가 거부형인데 반해 어머니는 반보호형의 경우 아동은 심한 반항형이 된다. 그러나 표면은 스스로 통제하는 힘이 결핍되기도 한다. 반대로 어머니가 엄격형이고 아버지가 익애적인 경우는 남아는 여성적이 되고 여아는 남성적이 되기 쉽고 또 동성애에 빠지기 쉽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부모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한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적절히 통제된 성격의 영향 아래 성장한 아동은 바람직하고 좋은 성격과 행동을 형성하지만 반면에 부모의 그릇된 태도와 충동적인 성격의 영향을 받고 성장한 아동은 비정상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성격과 행동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나 성격은 자녀의 바람직한 성격이나 행동의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 III. 研究方法

#### 1. 標集對象

標集對象은 제주도내 所在하고 있는 국민학교의 6학년 兒童과 學父母를 都市 지역과 邑面 지역의 인원을 고려하여 1200명을 선정하였다. 이 중에서 부모와 아동이 서로 짝이 되지 못한 것이나 응답에 불성실한 것을 제외한 1088부 만을 최종 統計資料로 사용하였다.

이에 조사 대상자의 지역별, 남·여아동 標集 狀況은 다음 <표Ⅲ-1>과 같다.

< 표Ⅲ-1 > 조사대상 아동의 지역별, 성별 상황

성별 \소재지	시 지역	읍, 면지역	계
남	266	251	517
여	250	321	571
계	516	572	1088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을 국민학교 6학년으로 한정하는 것은 질문지의 내용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고 응답할 수 있으며 부모용 질문지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한 그들의 부모들이 일정한 가족체제를 형성한 시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조사 기간은 1991년 9월 1일부터 9월 10일에 걸쳐 행해졌으며, 부모용 설문지는 가정에 보내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아동용 설문지는 담임교사가 일정한 시간동안 아동에게 기록하도록 하였다.

#### 2. 測定道具

##### 1) 養育態度 知覺 測定 道具

부모의 양육태도 측정 설문지는 李元亨(1980)이 觀察한 사용한 Schaefer(1959)의 MBRI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와 吳起善(1968)의 부모용 부모자녀관계 진단검사지를 참고로하였다. 본 연구의 양육태도 검사요인으로는 愛情的 態度, 拒否的 態度, 統制的 態度, 溺愛的 態度, 矛盾不一致 態度의 5개 요인으로 분류하고 이에 해당되는 문항을 각 요인 마다 15개의 문항으로 총 75개의 문항을 선정하여 이를 조사대상 50명에게 예비검

사를 실시한 후, 50문항 만을 선정, 부모용은 5단계, 아동용은 2단계 평정척으로 사용하였고,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의 신뢰도 검증을 한 결과 다음 <표 Ⅱ-2>와 같다.

<표 Ⅱ-2>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의 신뢰도

부모의 양육태도	이정적태도		거부적태도		통제적태도		불일치태도		익애적태도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a 계수	.86	.85	.83	.81	.79	.75	.76	.70	.77	.68

평가방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의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여 각각 1점, 2점, 3점, 4점, 5점으로 점수화하였다.

아동용 설문지는 부모용 설문지를 아동이 이해하고 측정하기 쉽도록 고쳐서 사용하였으며, 평가방법은 “그렇다”, “아니다”로 응답하게 하여, 각 2점, 1점으로 점수화하였다.

2) 兒童의 情緒的 不適應 行動 知覺 檢査道具

정서적 부적응행동의 판별도구로서는 Achenbach(1978)가 제작한 兒童 行動에 관한 質問紙(child behavior checklist)와 Quay(1972)가 제작한 情緒的 不適應用 설문지를 참고로 하여, 정서적 부적응 행동을 5개 要因, 즉 萎縮行動, 退行行動, 過剩行動, 強迫行動, 攻擊行動을 선정하여 각 요인 마다 15개의 문항으로 총 75개의 문항을 채택하여 이를 앞서와 같은 예비검사를 거쳐 50문항 만을 최종 선정하여 父母用은 4단계, 兒童用은 2단계 評定尺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Cronbach  $\alpha$  계수에 의한 신뢰도 검증 결과는 다음 <표 Ⅱ-3>과 같다.

<표 Ⅱ-3>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 검사의 신뢰도

정서 부적응 행동	위축행동	과잉행동	공격행동	퇴행행동	강박행동
a 계수	.82	.81	.81	.79	.80

또한 兒童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 측정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 측정을 부모와 아동 자신 모두에게 각각 나누어 측정하였다.

부모용 설문지에 대한 평가방법은 “아주 그런 편이다”, “약간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척도를 사용하여, 각각 4점, 3점, 2점, 1점으로 점수화하였다.

아동용 설문지는 부모용 설문지를 아동이 이해하고 측정하기 쉽도록 고쳐서 사용하였으며, 평가방법은 “그렇다”, “아니다”로 응답하게 하여 각각 2점, 1점으로 점수화하였다.

### 3. 資料處理 方法

본 연구의 자료처리 방법은 SPSS(Statistics Package for Social Science)를 사용하여 각 요인의 平均值 및 標準偏差를 산출하였으며 부모-자녀간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의 差와 자녀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F, r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 IV. 結果 및 解釋

앞에서 진술한 본 연구의 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집한 자료 분석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養育態度에 대한 父母 및 兒童의 知覺

#### 1) 養育態度에 대한 父母知覺과 兒童知覺 差異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부모지각과 자녀지각 간에 차이가 있는지 t검정한 결과는 다음 <표N-1>과 같다.

<표N-1> 양육태도에 대한 부모, 자녀의 지각간의 차이

양육태도 요인	부모(N=1088)		자녀(N=1088)		t
	X	SD	X	SD	
애정적 태도	7.97	1.44	7.04	2.19	14.78**
거부적 태도	8.03	1.51	8.28	1.97	-4.22**
통제적 태도	5.70	1.52	6.11	1.97	-6.54**
불일치적태도	6.87	1.39	6.50	1.69	6.68**
익애적 태도	6.61	1.33	6.68	1.79	-1.20
전 체	35.18	4.90	34.61	6.18	3.26**

\*\* p < .01

<표 N-1 >에 의하면 양육태도 전체점수에 있어서 부모지각 점수와 자녀지각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t=3.26, P<.01). 하위요인들 간의 차이에 있어서도 溺愛的 態度를 제외하고 愛情的態度(t=14.78, P<.01), 拒否的 態度(t=-4.22, P<.01), 統制的 態度(t=-6.52, P<.01), 矛盾不一致的 態度(t=6.68, P<.01)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애정적 태도에 있어서 부모는 자녀보다 더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父, 母의 養育態度에 대한 父·母 知覺과 兒童知覺

부·모 각각의 양육태도지각과 부·모 각각의 양육태도에 대한 아동지각간의 차이가 있는지 t검정한 결과는 다음 <표 N-2 >과 같다.

<표 IV-2> 양육태도에 대한 부·모의 지각과 아동의 지각간의 차이

양육태도요인	부(N=479)		자녀(N=479)		t	모(N=609)		자녀(N=609)		t
	X	SD	X	SD		X	SD	X	SD	
애정적 태도	8.07	1.23	7.12	2.39	8.96**	7.97	1.32	5.97	2.15	20.43**
거부적 태도	8.29	1.24	7.29	2.25	9.06**	7.92	1.42	6.74	1.74	14.29**
통제적 태도	5.72	1.43	8.46	2.01	-24.48**	5.75	1.45	6.44	1.78	-7.92**
불일치적태도	7.01	1.22	8.31	2.19	-12.01**	6.85	1.30	6.85	1.92	0.02
익애적 태도	6.65	1.21	6.28	2.00	3.44**	6.66	1.21	6.74	1.92	-0.95
전 체	35.74	3.67	35.04	5.86	2.52*	35.19	4.01	34.77	5.77	1.72

\* p < .05, \*\* p < .01

<표 IV-2>에 의하면 아버지의 경우에 있어서, 아버지의 전체 양육태도 지각점수와 아동의 전체 지각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t=2.52, P < .05). 또한 모든 하위요인들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어머니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전체 양육태도 지각점수와 아동의 전체 지각점수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애정적(t=20.43, P < .01), 거부적(t=14.29, P < .01), 통제적 태도(t=-7.92, P < .01)의 요인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IV-2>에서 보는 바와같이 애정적 거부적 태도에 있어서 아버지는 자녀보다 더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반면에 통제적, 불일치적 태도에 있어서는 자녀가 아버지보다 훨씬 높게 지각하고 있다. 또한 어머니와 자녀간의 지각 관계에 있어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 3) 아버지, 어머니간의 양육태도 지각 차이

양육태도 지각에 있어서 아버지, 어머니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한 결과는 다음 <표 IV-3>과 같다.

<표 IV-3> 아버지, 어머니간의 양육태도 지각 차이

양육태도	부 (N=479)		모 (N=609)		t
	X	SD	X	SD	
애정적 태도	8.07	1.23	7.99	1.32	1.00
거부적 태도	8.29	1.24	7.92	1.42	4.51**
통제적 태도	5.72	1.43	5.75	1.45	-0.39
불일치적 태도	7.01	1.22	6.85	1.30	2.04*
익애적 태도	6.65	1.21	6.66	1.21	-0.22
전 체	35.74	3.67	35.19	4.01	2.36*

\* p < .05, \*\* p < .01

<표 IV-3>에 의하면 전체양육태도 지각점수에 있어서 아버지, 어머니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t=2.36, P<.05$ ). 그리고 하위요인에 있어서는 拒否的 態度 ( $t=4.51, P<.01$ )와 矛盾不一致 態度( $t=2.04, P<.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에서는 부·모간에 거부적 태도와 모순불일치적 태도에 있어서 母보다 父가 더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4) 父母의 養育態度에 대한 兒童의 性別 知覺 差異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서 아동의 남·여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정한 결과는 다음 <표IV-4>와 같다.

<표IV-4> 양육태도에 대한 아동의 성별 지각차이

양육태도	남아(N=518)		여아(N=571)		t
	X	SD	X	SD	
애정적 태도	7.00	2.15	7.18	2.08	-1.34
거부적 태도	8.21	1.88	8.46	1.81	-2.27*
통제적 태도	5.84	1.88	6.44	1.88	-5.19**
불일치적 태도	6.81	1.61	6.68	1.59	-2.81**
익애적 태도	6.70	1.69	6.75	1.71	-0.49
전 체	34.16	5.44	35.51	5.35	-4.10**

\*  $p<.05$ , \*\*  $p<.01$

<표IV-4>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아동의全體 지각점수에서 남·여간에 유의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4.10, P<.01$ )

그리고 하위요인에 있어서 愛情的 態도와 溺愛的 態도를 제외하고 拒否的 ( $t=-2.27, P<.05$ ), 統制的( $t=-5.19, P<.01$ ), 矛盾不一致的( $t=-2.81, P<.01$ )태도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남아와 여아의 지각 경향을 보면, 거부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에 대해서는 남아보다 여아가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반면에, 모순불일치적 태도에 있어서는 남아가 더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5) 地域別 父母의 養育態度 知覺 差異

부모의 양육태도지각이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한 결과는 다음 <표IV-5>와 같다.

<표 IV-5> 지역별 부모의 양육 태도 지각 차이

양육태도	시 (N=516)		읍면 (N=572)		t
	X	SD	X	SD	
애정적 태도	8.12	1.26	7.94	1.28	2.33*
거부적 태도	8.12	1.34	8.06	1.37	0.76
통제적 태도	5.80	1.42	5.69	1.46	1.21
모순불일치적	7.09	1.27	6.78	1.26	3.96**
익애적 태도	6.76	1.18	6.56	1.23	2.72**
전 체	35.89	3.84	35.04	3.86	3.65**

\* p < .05, \*\* p < .01

<표 IV-5>에 의하면 부모의 전체 양육태도 지각점수에 있어서 도시·읍면 간에 有意한 差異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t=3.65, P<.01).

그리고 하위요인들에 있어서는 愛情的(t=2.33, P<.05), 矛盾不一致的(t=3.96, P<.01), 溺愛的(t=2.72, P<.01) 態度에서 有意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애정적 모순불일치적, 익애적 태도에서는 읍면 지역의 부모보다 더 높은 지각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6) 地域別 父母의 養育態度에 대한 兒童知覺 差異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한 결과는 다음 <표 IV-6>과 같다.

<표 IV-6>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지역별 아동의 지각 차이

양육태도	시(N=516)		읍면(N=571)		t
	X	SD	X	SD	
애정적 태도	7.20	2.06	7.00	2.16	1.55
거부적 태도	8.29	1.99	8.38	1.72	-0.78
통제적 태도	6.22	1.96	6.10	1.85	1.07
모순불일치적	6.53	1.64	6.57	1.57	-0.50
익애적 태도	6.73	1.72	6.72	1.68	0.03
전 체	34.97	5.55	34.78	5.34	0.57

\* p < .05, \*\* p < .01

<표 IV-6>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아동의 전체 지각점수는 도시·읍면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2. 不適應行動에 대한 父母 및 兒童의 知覺

### 1) 兒童의 不適應行動에 대한 父母知覺과 兒童知覺

아동의 부적응행동에 대한 부모지각과 아동지각 간에 차이가 있는지 t검  
증한 결과는 <표Ⅳ-7>과 같다.

<표Ⅳ-7>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대한 부모지각과 아동지각 간의 차이

부적응행동	부 모		아 동		t
	X	SD	X	SD	
위축행동	4.73	1.34	2.77	2.08	32.46**
과잉행동	4.99	1.45	3.65	2.25	19.91**
공격행동	3.86	1.19	2.19	1.87	28.66**
퇴행행동	4.95	1.28	3.28	1.85	29.28**
강박행동	4.95	1.30	4.54	2.24	5.80**
전 체	23.49	5.13	16.44	7.31	31.66**

\*\* p < .01

<표Ⅳ-7>에 의하면 아동의 부적응행동에 대한 부모의 전체 지각점수와 아  
동의 전체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t=31.66, P<.01).  
또한 모든 하위요인들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표Ⅳ-7>에서 보는 바와같이 위축행동, 과잉행동,  
퇴행, 강박행동 등 모든 행동영역에 있어서 부모는 자녀가 지각하고 있는 수  
준보다 훨씬 높게 지각하고 있어서 부적응 행동에 대한 부모-자녀간 지각수  
준이 차이가 매우 심각할 정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2) 兒童의 不適應行動에 대한 父, 母의 知覺 差異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 부·모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  
아보기 위해 t검증한 결과는 다음 <표Ⅳ-8>과 같다.

<표Ⅳ-8> 아동의 부적응행동에 대한 부·모간의 지각 차이

부적응행동	부 (N=479)		모 (N=609)		t
	X	SD	X	SD	
위축행동	4.71	1.30	4.81	1.28	-1.24
과잉행동	4.97	1.39	5.07	1.39	-1.20
공격행동	3.77	1.03	3.97	1.22	-2.88**
퇴행행동	4.94	1.25	5.03	1.17	-1.28
강박행동	4.89	1.17	5.06	1.28	-2.30*
전 체	23.29	4.68	23.95	4.76	-2.30*

\* p < .05, \*\* p < .01

< 표Ⅳ-8 >에 의하면 아동의 부적응행동에 대한 전체지각점수에 있어서 부·모간에 유의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t=2.30, P<.05$ ). 그리고 하위요인에 있어서는 攻擊行動( $t=-2.88, P<.01$ )과 強迫行動 ( $t=-2.30, P<.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두 행동 모두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높게 지각하고 있다.

### 3) 兒童의 不適應行動 知覺에 대한 性別 差異

아동의 부적응행동 지각에 있어서 남·여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Ⅳ-9> 아동의 부적응행동 지각에 대한 성별 차이

부적응행동	남아 (N=517)		여아 (N=571)		t
	X	SD	X	SD	
위축행동	2.85	2.14	2.74	2.01	0.85
과잉행동	3.95	2.24	3.42	2.21	3.95**
공격행동	2.30	1.93	2.12	1.80	1.59
퇴행행동	3.34	1.90	3.28	1.78	0.54
강박행동	4.45	2.23	4.69	2.20	-1.73
전 체	16.90	7.44	16.25	6.96	1.49

\*\*  $p<.01$

< 표Ⅳ-9 >에 의하면 아동의 부적응행동 지각의 전체점수에 있어서 유의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위요인에 있어서 過剩行動( $t=3.95, P<.01$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과잉행동 면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게 지각하고 있다.

### 4) 地域別 兒童의 不適應行動에 대한 父母의 知覺 差異

자녀의 부적응행동에 대한 부모의 지각이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Ⅳ-10> 아동의 부적응행동에 대한 지역별 부모의 지각 차이

부적응행동	시(N=516)		읍면(N=572)		t
	X	SD	X	SD	
위축행동	4.76	1.29	4.77	1.29	-0.14
과잉행동	4.96	1.37	5.09	1.40	-1.59
공격행동	3.82	1.10	3.95	1.18	-1.82
퇴행행동	4.98	1.22	4.99	1.20	-0.24
강박행동	4.45	2.23	4.69	2.20	-1.73
전 체	23.50	4.83	23.79	4.65	-1.03

\*  $p<.05$ , \*\*  $p<.01$

<표 N-10 >에 의하면 아동의 부적응행동에 대한 부모의 지각은 도시 읍면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地域別 兒童의 不適應行動 知覺 差異

아동의 부적응행동 지각이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N-11> 지역별 아동의 부적응행동 지각 차이

부적응행동	시(N=516)		읍면(N=572)		t
	X	SD	X	SD	
위축행동	2.84	2.03	2.76	2.11	0.64
과잉행동	3.74	2.28	3.62	2.20	0.91
공격행동	2.10	1.88	2.30	1.85	-1.72
퇴행행동	3.41	1.93	3.22	1.75	1.67
강박행동	4.73	2.22	4.44	2.20	2.11*
전 체	16.82	7.28	16.34	7.12	1.10

\* p < .05

<표 N-11 >에 의하면 아동의 부적응행동 지각의 전체점수는 도시·읍면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強迫行動(t=2.11, P<.05)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강박행동에 있어서는 시 지역의 부모, 자녀들이 읍면 지역보다 약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養育態度 및 不適應行動 要因間의 相關

1) 養育態度 要因間의 相互關係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부모 자신의 지각과 자녀의 지각과의 관계를 여러 요인들간의 상호 상관관계는 다음 <표 N-12 >와 같다.

<표 N-1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있어서 부모 자신의 지각은 愛情的的, 統制的, 溺愛的 態度와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자녀의 지각에 있어서는 모든 요인들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N-12> 양육태도 요인간의 상호관계

부모 \ 자녀	애정적	거부적	통제적	모순불일치	익애적	전체
애정적 태도		0.48**	0.17**	0.26**	-0.10**	0.61**
거부적 태도	0.53**		0.36**	0.44**	0.11**	0.76**
통제적 태도	0.07	0.38**		0.40**	0.21**	0.67**
모순불일치적	0.36**	0.55**	0.43**		0.32**	0.73**
익애적 태도	0.05	0.19**	0.25**	0.42**		0.44**
전 체	0.60**	0.79**	0.42**	0.81**	0.54**	

\*\* p < .01

2) 不適應行動 要因間의 相關

아동에 대한 부모의 부적응 행동 지각 및 자녀 자신의 부적응 행동 지각 요인들간의 상호상관은 다음과 같다.

<표 N-13> 부모와 자녀의 부적응 행동 요인간의 상호상관

부모\자녀	위 축	과 잉	공 격	퇴 행	강 박	전체
위축행동		0.25**	0.29**	0.42**	0.41**	0.67**
과잉행동	0.39**		0.55**	0.35**	0.40**	0.73**
공격행동	0.36**	0.66**		0.26**	0.35**	0.68**
퇴행행동	0.57**	0.54**	0.42**		0.49**	0.70**
강박행동	0.55**	0.52**	0.48**	0.61**		0.76**
전 체	0.74**	0.81**	0.74**	0.80**	0.81**	

\*\* p < .01

<표 N-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不適應行動 知覺 要因間에 모두 有意한 相關이 있으며, 자녀의 不適應行動 要因間에 모두 有意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父母 養育態度 知覺과 兒童知覺 養育態度間의 相關

부모 양육태도 지각과 아동지각 양육태도간의 상관은 다음 <표 N-14>과 같다.

<표 N-14>에서 보면 부모 양육태도 지각과 아동지각 양육태도간의 상관은 통계상 의미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N-14> 부모 양육태도 지각과 아동지각 양육태도간의 상호상관

\ 아동 부모 \	\ 아동				
	애정적	거부적	통제적	불일치적	익애적
애정적 태도	0.41**	0.39**	0.19**	0.27**	0.03**
거부적 태도	0.27**	0.37**	0.25**	0.28**	0.07**
통제적 태도	0.10	0.17**	0.31**	0.18**	0.07**
불일치적태도	0.24**	0.26**	0.20**	0.31**	0.12**
익애적 태도	0.08	0.11**	0.11**	0.15**	0.33**

\*\* p < .01

4) 兒童의 不適應行動에 대한 父母知覺 要因과 兒童知覺 要因間의 相關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대한 부모지각 요인과 아동지각 요인간의 상관은 다음 <표N-15>와 같다.

<표N-15> 아동의 부적응행동에 대한 부모지각 요인과 아동지각 요인간의 상호상관

\ 아동 부모 \	\ 아동				
	위축행동	과잉행동	공격행동	퇴행행동	강박행동
위축행동	0.39**	0.08*	0.10**	0.18**	0.14**
과잉행동	0.12**	0.33**	0.25**	0.15**	0.14**
공격행동	0.11**	0.21**	0.27**	0.10**	0.08*
퇴행행동	0.27**	0.18**	0.12**	0.32**	0.17**
강박행동	0.22**	0.16**	0.12**	0.25**	0.28**

\* p < .05, \*\* p < .01

< 표N-15 >에서 보면 아동의 부적응행동에 대한 부모지각 요인과 아동지각 요인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상 의미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兒童의 不適應行動에 대한 父母의 知覺이 兒童의 不適應行動에 미치는 影響

아동의 부적응행동에 대한 부모의 지각과 아동의 부적응행동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N-16>과 같다.

<표 N-16> 아동의 부적응행동에 대한 부모의 지각이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류 변인	R <sup>2</sup>	R <sup>2</sup> 의 변환	F
퇴행행동	0.30	0.09	105.26**
과잉행동	0.33	0.11	67.01**
강박행동	0.34	0.12	47.79**
위축행동	0.35	0.12	37.08**

\*\* p < .01

<표 N-16>에 의하면 아동의 전체 부적응행동에 대하여 부모의 지각이 미치는 정도는 退行行動이 약 30%를 예언하고, 퇴행행동 예언력에 過剩行動은 약 3%를 추가하며, 퇴행행동과 과잉행동 예언력에 強迫行動이 1%추가, 그리고 퇴행행동, 과잉행동, 강박행동 예언력에 萎縮行動이 1%를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공격행동 요인은 통계적으로 의의가 없으므로 해서 분석에서 자동 탈락되었다. 따라서 아동의 不適應行動에 대한 父母知覺의 預言程度는 퇴행행동, 과잉행동, 강박행동, 위축행동의 順으로 크다고 하겠다.

## V. 要約 및 結論

### 1. 要約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는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행동이 가족체제에 대한 知覺 如何, 즉 부모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假定을 전제로 하여, 자녀의 가족체제에 대한 지각과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앞에서 언급한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양육태도 하위요인에 대한 知覺은 부모-자녀간에 차이가 있는가?
- 2) 정서적 부적응행동 하위요인에 대한 知覺은 부모-자녀간에 차이가 있는가?
- 3) 양육태도 하위요인 및 정서적 부적응 행동 하위요인에 대한 부모-자녀간의 知覺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 4) 자녀의 정서적 부적응행동에 대한 부모의 知覺이 자녀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도에 所在한 국민학교 21개교의 1200名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제 연구에 사용된 대상자 수는 총 1088명(남자: 517, 여자 571)이었다.

본 연구의 분석 요인은 가족체제 요인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 중 愛情的的態度, 拒否的態度, 統制的態度, 矛盾不一致的態度, 溺愛的態度 變因을 택했고, 정서적 부적응행동 변인으로는 養育行動, 過剩行動, 攻擊行動, 退行行動, 強迫行動을 택하여 본 연구에 사용했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통계적 방법으로는 X, SD, t檢證, F檢證, r, 回歸分析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부모-자녀간 지각은 전체적으로 有意한 차이가 있었고( $t=3.26, p<.01$ ), 父·母 각각의 지각과 아동 지각간의 차에서는 父에게서는 有意한 차이가 있었으나, 母에게서는 일부 요인에서만 차이가 있었다.

또 부·모간의 지각에서도 拒否的( $t=4.51, p<.01$ ), 矛盾不一致的 態度( $t=2.04, p<.05$ )에서 有意한 차이가 있었으며, 부모지각이 지역간에서도 도시·읍면간 愛情的( $t=2.33, p<.05$ ), 矛盾不一致的( $t=3.96, p<.01$ ), 溺愛的( $t=2.72, p<.01$ )態度에서 유의한 차가 있었으나, 兒童에게서는 지역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아동의 부적응행동에 대한 부모-아동간의 지각 차는 아동의 부적응행동에 대한 부모의 전체 지각점수와 아동의 전체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t=31.66, p<.01$ ), 또한 모든 하위요인들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不適應行動에 대한 전체 지각점수에 있어서 부·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 $t=2.30, p<.05$ ), 하위요인에 있어서는 攻擊行動( $t=-2.88, p<.01$ )과 強迫行動( $t=-2.30, p<.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兒童의 부적응행동 지각에 있어서 남·녀간에 차이가 전체 점수에 있어서 유의한 차가 없었으나, 하위요인에 있어서 過剩行動 요인은 차이가 있었고( $t=3.95, p<.01$ ), 아동의 부적응행동에 대한 부모의 지각과 兒童의 부적응행동 지각은 地域에 따라서 차이가 없었으나, 強迫行動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가 있었다( $t=2.11, p<.05$ ).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 요인 및 아동의 양육태도 요인들간의 상호관계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있어서 愛情的, 統制的, 溺愛的 態度와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兒童의 知覺에 있어서도 모든 요인들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부적응행동 지각 및 아동의 부적응행동 지각 요인들간의 상관은 아동에 대한 父母의 부적응행동 知覺 요인들간, 그리고 兒童의 부적응 행동 요인들간에 모두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넷째, 아동의 부적응행동에 대한 부모의 지각과 아동의 부적응행동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回歸分析한 결과는 아동의 전체 부적응행동에 대하여 부모의 지각이 미치는 정도는 退行行動이 약 30%를 예언하고, 퇴행행동 豫言力에 過剩行動은 약 3%를 追加하며, 退行行動과 過剩行動 예언력에 強迫行動이 1%추가, 그리고 退行行動, 過剩行動, 強迫行動 예언력에 萎縮行動이 1%를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攻擊行動 要因은 통계적으로 의의가 없으므로 분석에서 자동 탈락되었다. 따라서 아동의 부적응행동에 대한 부모 지각의 豫言程度는 退行行動, 過剩行動, 強迫行動, 萎縮行動의 순으로 크다고 하겠다.

## 2. 結 論

본 연구는 家族體制에 대한 父母-子女間의 知覺의 差와 情緒的 不適應行動과의 關係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부모의 實際的인 養育態度보다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아동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이며, 느끼고 있는가를 더 중요시 하였다. 이와 같이 兒童의 知覺을 重點的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父母가 知覺하는 養育態도와 兒童의 知覺間에는 차이가 날 수 있다. 더구나 아동의 知覺面에 있어서도 아동 자신의 內的 心理過程 속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具體的이고 確定的인 結論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調査 結果를 토대로 종합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結論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부모와 자녀간의 지각 차이는 애정적 태도와 모순불일치적면에 있어서는 부모가 자녀보다 더 높게 지각하고 있으나 반면에 거부적태도와 통제적 태도에 있어서는 아동이 부모보다 더 높게 지각하고 있다. 또한 부모와 자녀의 지각간의 차이에 있어서는 애정적, 거부적 태도에서는 아버지가 자녀보다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반면에 통제적, 모순불일치적 태도에 있어서는 자녀가 아버지보다 훨씬 높게 지각하고 있다. 어머니와 자녀간의 지각관계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둘째, 자녀의 부적응행동에 대한 부모지각과 아동지각은 하위요인 모든 행동영역에 있어서 부모는 자녀가 지각하고 있는 수준보다 훨씬 높게 지각하고 있고, 아버지·어머니간의 지각은 攻擊行動, 強迫行動에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아동의 성별에 따른 지각은 過剩行動 면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게 지각하고 있다. 전체 지각점수는 지역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強迫行動에 있어서는 시 지역의 부모, 자녀들이 읍면 지역의 그들보다 약간 높게 지각하고 있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에 있어서 부모 자신의 지각은 愛情的, 統制的, 溺愛的 態度와의 關係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자녀의 지각에 있어서도 모든 요인들간에, 그리고 자녀에 대한 父母의 不適應行動 知覺 要因間에 모두 有意한 相關이 있으며, 자녀의 不適應行動 要因間에도 모두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내제, 아동의 전체 부적응행동에 대하여 부모의 지각이 미치는 정도는 退行行動, 過剩行動, 強迫行動, 萎縮行動의 順으로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不適應行動의 裏面에는 반드시 그럴만한 原因들이 있을 것이고, 그 원인들 중에는 父母와 子女의 知覺의 差異에서 派生된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부모는 자녀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그 差異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또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늘 자녀의 입장을 考慮하여 受容的인 태도를 갖고, 拒否的, 統制的, 溺愛的인 태도가 아닌 中庸을 택하여 信賴와 愛情이 수반된 一貫性 있는 態度를 보일 때, 情緒적으로 安定되어 家庭, 學校, 社會生活에서 원만하게 잘 適應할 수 있는 한 개인이 될 수 있음을 示唆해 주고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 父의 양육태도도 母의 양육태도에 못지 않게 자녀의 情緒 發達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서 자녀에게 있어 父의 양육태도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示唆해 주고 있다.



參 考 文 獻

- 金箕斗, 韓國少年犯罪研究, 서울: 博英社, 1967.
- 金奉植,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태도와 자녀의 장래전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 金英淑,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김인자, 정서부적응아 판단에 관한 일연구, 이화여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 南相仁,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인지양식과의 관계,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金在恩, 韓國家族의 心理,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4.
- 金丁煥 譯, 現代思想 叢書全集 서울: 경지사, 1988, 173.
- 김형호, "아동의 부적응에 관한 일연구", 전주교대논문집, 제15집, 1978.
- 朴性洙, "아동의 부적응행동과 가족치료", 행동과학연구, 12, 통권 113, 1979.
- 朴貞善,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성숙도 및 인기도와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6.
- 安 鎭, 가정에서의 정의적 교육방법에 대한 문제성 조사연구, -여학생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 楊惠勝, 아동이 지각하는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시설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3.
- 嚴德伊, 어머니의 권위주의 성격이 자녀의 사회화 유형 인지양식 및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吳起善, 親子關係 診斷檢査 要綱, 서울: KTC, 1965.
- \_\_\_\_\_,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 검사요강, 서울: 코리안테스팅센터, 1982.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편, 2000년대의 주인공인 오늘의 어린이, 서울: 培英社, 1979.
- 劉永珠, 家族關係學, 서울: 교문사, 1980.
- \_\_\_\_\_,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양육태도가 아동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 2권 9호, 1971.
- 柳永喜,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인지와 그 자녀의 적응, 경북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79.
- 尹點龍, Burks의 행동평정척도에 의한 정서 장애 아동의 부적응 행동 특성,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2.
- 윤희상,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4.
- 이근후 등, 最新精神醫學, 서울: 하나 醫學社, 1988.
- 이 은, 정서부적응 아동의 특성과 그 환경적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1.

- 李相魯, 性格과 行動의 指導, 서울: 中央適性研究所, 1979.
- 李永愛, 부모의 대인관 및 자녀관이 자녀교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3.
- 李元寧, 어머니의 자녀 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계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3.
- 李金順,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정서특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4.
- 李鍾昇,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서적특성의관계", 연구노우트, Vol. 11, No. 1, November, 1982
- 임형진, 이시용, 생활지도, 서울: 교육과학사, 1990.
- 張秉琳, 아동 심리학, 서울: 법문사, 1965.
- 全敬淑, 부모간 양육태도의 일치도와 아동의 성격특성과의 상관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 鄭元植, 교육환경론, 서울: 교육과학사, 1989.
- \_\_\_\_\_, 인간과 교육, 서울: 培英社, 1973.
- 最新 教育學大辭典, 서울: 教育科學社, 1988.
- 崔正薰, 知覺向性檢査 實施要綱, 서울: 코리안테스팅센터, 1980.
- 韓宗惠, 부모의 인성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인성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0.
- 石黒大義, 家族關係と 性格形成, 名古屋大學 教育學部 紀要 第 3 券, 1957.
- 品川孝子, "家庭環境の 診斷", 教育診斷法, 第 5 卷, 東京: 牧書店, 1958.
- Achenbach, T., "The child behavior profiles : I. Boys aged 6 through II.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vol 46. 1978.
- Aldous, J., "Family Careers". *Developmental Change in Families*, New York : John Wiley & Sons, 1978.
- Baldwin, A.L., "Patterns of Parent Behavior", *Psychological Monographs*, 1945.
- \_\_\_\_\_, *The appraisal of parent behavior Psychology*, New York: Russell Sage, 1964.
- \_\_\_\_\_, *Behavior and development in childhood*, N.Y.: Holt, Rainhart and Winston, 1955.
- Bandura, A., & Walters, R.H., *Adolscnt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30, 1959.
- Barbe, W.B., *The exceptionaal Child*, N.Y : The Center for Applied Research in Education Inc., 1963.
- Baruch, D.W., *New Ways in Discipline*, N.Y.: McGraw-hill, 1949.

- Beavers, W.R., & Voeller, M.N., "Family models: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 Olson Circumplex Model with the Beavers System Model". *Family Process*, 1983, 22.
- Becker, C.,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Hoffman, M.C. & Hoffman, L.W. (ed),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1964, Vol. 1.
- Bloom, B.S., *Stability and Change in Human Character*, New York: John Wiley & Sons, 1964.
- Bower, E., *Early identification of emotionally handicapped Children in school 2nd ed.*, Springfield : Charles C. Thomas, 1969.
- Broderick, C.B., & Harvey, P.K., "Family process and child outcomes", In W. Burr (Ed.),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London : Collier Macmillan Publishers, 1979.
- Bronfenbrenner, U. & Mahony, M.A., *Influences on Human Development 2nd ed.*, Hinsdale, Ill: The Dryden, 1975.
- Burckley, W., *Sociology and Modern Systems Theory*,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Prentice Hall, 1967.
- Buss, A.H. & Plomin R.A., *A Temperament Theory of Personality Development*, N.Y. : John Wiley & Sons., 1975.
- Cattell, R.B., *Description and measurement of Personality*, N.Y.: World Book Co., 1964.
- Coe, W.C., *Challenges of Personal Adjustment*, San Francisco : Rinehart Press, 1972.
- Combs, A.W. & Snygg, D., *Individual Behavior: A Perceptual Approach Behavior, Revised*, New York: Harper & Brother, 1959.
- Dunn L. M., *Exceptional Children in the Schools*, N.Y :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9.
- Erikson, E., "The Course of Healthy Personality Development Midcentury, White House Conference on children and Youth". In Seidman, J.M. (Ed). *The adolescent - A Book of Readings*, N.Y Holt, Reinhart and Winston, 1960.
- Feiring, C., & Lewis, M., "The Child as a member of the family system", *Behavior Science*, 1978, 23.
- Fishbein, M. & Aizen, I.B., "Attitude Intension and behavior" : *An Introduction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ssachusetts* : Addison Wesley, 1975.
- Foley, V.D., "Family Therapy". In R. Corsini (Ed.), *Current Psychotherapies III*: F.E. Peacock Publishers, 1979.

- Freud, S.,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psychoanalysis",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Vol 21, 1910.
- Gearheart B.R. & Weishan M.W., *The Handicapped Child in the regular Classroom*, Saint Louis : The Mosby Co. ,1976.
- Hurlock, E.B., "Influence of Parental Attitude on Family Relations", *Child Development* (6th ed.), Mc Graw - Hill, 1978.
- Ilg, F.L. & Ames, L.B., *Child Behavior*, London : Hamish Hamilton, 1955.
- Jacob, T., "Family interaction in disturbed and normal families": A Methodological and substan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975, 82.
- Jersild A. T., *Child Psychology*, N.Y. : Prentice Hall, 1966.
- Kauffman, J.M. & Hallahan, D.P., "Exceptional children":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Englewood Cliffs, N. Y.: Prentice - Hall, Inc., 1978.
- Kirt S.A., *Educating exceptional children, 2nd.*, Boston : Houghton Mifflin Company, 1972.
- Lewin, S.M., *Patterns of child rearing*, N.Y: Row Peterson and Co, 1957.
- Medinnus, G.R. & Johnson, R.C.,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behavior and development*, N.Y.: John Wiley & Sons., 1969.
- Medinnus, G.R., "Adolescents self- acceptance and perceptions of their parent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965, 29.
- \_\_\_\_\_. "Delinquent's perceptions of their parent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965, 29.
- \_\_\_\_\_. (ed), *Readings in the psychology of Parent-Child Relations*, N.Y.: John Willey, 1967.
- Minuchin, S., *Families and family Therapy*, Boston: Harvard University, University Press, 1974.
- Moos, R., & Moos, B., "A Typology of family social environments", *Family Process*, 1976, 15.
- Mussen, P.H. & Conger, J.J.,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New York : Harper & Brothers, 1956.
- Olson, D.H., Sprenkle, D., Russell, C.,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 :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Family Process*, 1979, 18.
- \_\_\_\_\_.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VI: Theoretical updates", *Family Process*, 1983, 22.
- Perkins, H.V., *Human Development and Learning (2nd ed.)*, New York :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74, P.130.

- Quay, H.C., "Patterns of Aggression, Withdrawl, and Immaturity", ed., Quay, H.C. & J.S. Werry., *Psychopathological Disorders of Childhood*, N.Y. : John Wiley & Sons, Inc., 1972.
- Reiner, H. R., *Children in conflict*, St.Louis : Mossby Co., 1976.
- Riskin, J., & Faunce, E., "An Evaluative review of family interaction research", *Family Process*, 1972, 11.
- Roe, A. & Siegelman, M.A., "A parent-child relations questionnaire", *Child Development*, 1963, 34.
- Rosen, E. & Fox, R.E. and Gregory, I., *Abnormal Psychology (2nd ed.)* Philadelphia : W.B Saunders Co., 1972.
- Rosen, B.C., "Social class and child's perception of the Parent", *Child Development*, 1964, 35.
- Schacfer, E. S.,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 Social Psychology*, 1959.
- \_\_\_\_\_,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1965, 36.
- \_\_\_\_\_, & Bell, R.Q and Bayley, N., "Development of a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959, 95.
- Sears, R.R., "Patterns of Child Rearing ", *The child psychology*, Jersild, A.T. (Ed.), Englewood Cliffs : Prentice Hall, 1960.
- Slater, P.E., *Parental behavior and the personality of the child*, J. Genet Psycho, 1962.
- Symonds, P.M., *The dynamics of parent - child relationship* , N. Y. : Bureau of publications,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1949.
- Walters, J. & Stinnett, N., "Parent-child relationships: A decade review of rese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71, Feb.
- Winder, C.L. & Rau, L., " Parental attitudes associated with social deviances in preadolescent boy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1962, No. 6.

<abstract>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erception of their Family System  
and Emotionally Maladjusted Behaviors

Kang Seung-hoo

Educational Administr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Heo Chul-soo

It is said that children are affected by the way how parents rear th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ren's perception on their family setting and their mode of emotional maladjustment. The following is the detailed task to be answered in the research:

- 1) Are there any discrepancie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s perceptoin on the sub-factors of Child Rearing Attitude ?
- 2) Are there any discrepancie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on the sub-factors of Maladjusted Behaviors ?
- 3) How the sub-factors of Child Rearing Attitude and the sub-factors of Maladjusted Behaviors are related with ?
- 4) How the parents' perception on the Maladjusted Behaviors of their children and kids's perception on their Maladjusted Mehaviors are

actually related with ?

Social Research method was adopted to conduct the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students and parents of 21 elementary schools in Cheju District. Two scales were utilized in order to bring out the responses of students and their parents. SPSS was applied to in the analysis of the dat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1)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Parents' Child Rearing Attitude between Parent Groups and Students Groups. Particularly parents responded more positively than students on 'Affectionate Attitude'.

2) Father Group showed higher perception scores than their Children's Group on 'Affectionate Attitude', while children showed higher perception scores than their fathers on 'Controlling Attitude' and 'Negative Attitude'. Similar are the results between Mother group and Student Group.

3) Mother Group revealed higher scores than Father Group concerning the perception of 'Rejective Attitude' and 'Absurd-Discordand Attitude', which were parts of Child Rearing Attitude.

4) Female Students showed higher scores than Male Students on 'Rejective Attitude' and 'Controlling Attitude', while Male Students did higher scores than Female Students on 'Absurd-Discordant Attitude' in the analysis of Child Rearing Attitude.

5) In the analysis of over-all percentration of Child Rearing Attitude, City Dwelling Parents responded more positively than County Dwelling Parents on such sub-factors of Child Rearing Attitude as 'Affectationate Attitude', 'Absurd-Dis- cordant Attitude', and 'Dotage Attitude'.

6) In such sub-factors of Maladjusted Behaviors as 'Depressed Behaviors', 'Obsessive Behaviors', 'Repressive Behaviors', and 'Compulsive Behavior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arent Group and Student Group. The score of Parent Group was higher than that of Student Groups in every sub-factor.

7) Mother Group revealed higher scores than Father Group in the

following sub-factors of 'Agressive Behaviors' and 'Compulsive Behaviors'.

8) Male Students showed higher scores than Female Students on the 'Obsessive Behavior', which is a sub-factor of Maladjusted Behavior.

9)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ity Dwelling Children and County Dwelling Children in the over-all score of Emotionally Maladjusted Behavior.

10) Each sub-factor, parents perceived, of Children's Maladjusted Behaviors i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other sub-factor, and the same is the result perceived by children.

11) 'Affectionate Attitude', 'Controlling Attitude', 'Dotage Attitude', parents perceived, of Child Rearing Attitude have mutu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Each sub-factor, children perceived, of Child Rearing Attitude i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other sub-factor.

12) The affects of parents' perception of their child's Maladjusted Behaviors on children's actual Maladjusted Behaviors are as follows: 'Regressive Behaviors' 30%, 'Obsessive Behaviors' 3%, 'Compulsive Behaviors' 1%, and 'Depressed Behaviors' 1%. However, 'Aggressive Behaviors' do not have any significant affects on children's actual Maladjusted Behaviors.



---

附 錄



附 錄

아 동 용 설 문 지 < I >

다음 설문들은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키우실 때에, 어떠한 자세로 대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설문을 잘 읽고, 평소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과 일치되는 태도를 보이시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난에 V표 하여 주십시오

국민학교 학년 반 번 (남, 여) 이름( )

문	아버지		어머니		문	아버지		어머니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1. 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겨워하십니다.					26. 그릇된 행동은( ? )가 고쳐주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2. 나의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 칭찬을 해 준다.					27. 나에게 유익한 것은 억지로라도 시킨다.				
3. 내가 원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나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28. 나의 공부나 학교 성적에 대하여 재촉한다.				
4.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29. 친구들을 선택하는데 신경을 쓰고 간섭한다.				
5. 내가 질문할 때마다 친절히 응해 준다.					30. 나는( ? )의 말에 복종해야 한다.				
6. 나와 같이 외출하거나 얘기하곤 한다.					31. 그때 그때 기분에 의하여 나에게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				
7. 나와 함께 다니기를 좋아한다.					32. 나에게서 꼭 같은 일인 태도 어떤 때는 꾸짖고 어떤 때는 묵인한다.				
8. 나와 바람직한 관계 맺기를 원한다.					33. 심하게 꾸중을 하고는 사과하거나 기분을 맞추어 준다.				
9. 나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다.					34. 내버려두다가도 때로는 나에게 성가시도록 도와준다.				
10. 내가 보이는 흥미, 관심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해서 도움을 준다.					35. 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나 혼자서 잘하지 못하면 화낸다.				
11. 내가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한다.					36. 입으로는 "바보", "틀렸어" 하면서도 내심은 '그래도' 하면서 기대한다.				
12. 내가 하는 이야기를 무시한다.					37. 늘 간섭하면서도 내가 의논하려면 상대해주지 않는다.				
13. 나에게 "싫다" 또는 "빡다"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38. 양친중 한분은 너무 양보가 많아 차이가 심하다.				
14. 하찮은 일로 나에게 "바보" 또는 "멍청이" 같은 표현을 자주 쓴다.					39. 양친중 한분이 없을 때 그의 말을 비난하곤 한다.				
15. 나의 실수를 참지 못한다.					40. 나에게 관한 것은 한쪽분만 전적으로 맡아서 책임을 느낀다.				
16. 속상한 일이 있으면 나에게 화풀이를 한다.					41. 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단하나의 위안의 존재가 된다.				
17. 바쁘다고 돌보지 않거나 말살대를 하지 않는다.					42. 나를 위하는 일이라면 어떤 희생도 한다.				
18. 내가 어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43. 꾸중은 하지 않고 칭찬만 하고 있다.				
19. 나의 학교성적이나 작품을 하찮게 여기거나 비웃는다.					44. 놀이든 공부든 내가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상대해 준다.				
20. "밥을 먹지마라, 내다버린다"고 위협 하곤 한다.					45. 나이보다 어린이에 같이 취급한다.				
21. 내가 말을 듣지 않을 때는 겁을 주거나 때려서라도 말을 듣게 한다.					46. 어떤 좋지 못한 것을 하든지 꾸중을 하지 않는다.				
22. 부모자녀간에는 상하의 구별이 분명히 해야한다고 한다.					47. 내가 부탁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준다.				
23. 나의 일과에 대해 엄격한 규칙을 정해 놓는다.					48. 내가 바라는 것이면 무리를 해서라도 해준다.				
24. 나의 일상생활을 일일이 지시한다.					49. 공부나 일은 기분을 살피면서 시킨다.				
25. 어른들의 이야기에 내가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50. 무엇이든 자녀본위로 생각한다.				

아 동 용 설 문 지 < II >

다음 문항들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문장을 읽고 자기가 느낀대로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 설문의 답에는 옳은 답, 틀린 답이 없으며 학교성과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안심하고 한 문장도 빠짐없이 답해 주십시오.

\*\*\*\*\*<응답방법>\*\*\*\*\*

그렇다 아니다

- ◎ 만약 내 자신의 모습이나 마음을 잘 나타냈으면 <그렇다>에 V표----- ( V ) ( )
- ◎ 만약 내 자신의 모습이나 마음과 전혀 다르다면 <아니다>에 V표 하면 됩니다. ( ) ( V )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1. 나는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 ) ( )		26. 나는 고집이 세고 반항적인 데가 있다. ( ) ( )	
2. 나는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혼날까 봐 겁부터 난다. ( ) ( )		27. 나는 싸움을 피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싸운다. ( ) ( )	
3. 나는 자신감이 없는 편이다. ( ) ( )		28. 나는 선생님 말씀에 대들고 불복종할 때가 많다. ( ) ( )	
4. 나는 웬지 눈치가 보이고 쉽게 당황한다. ( ) ( )		29. 나는 주위사람들에게 지적을 잘 당한다. ( ) ( )	
5. 나는 모든일에 참여하는 것이 싫다. ( ) ( )		30. 나는 나쁜 말과 욕을 자주 하는 편이다. ( ) ( )	
6. 나는 친구들에게 놀림을 잘 당한다. ( ) ( )		31. 나는 일을 하면 끝까지 하지 못할 때가 많다. ( ) ( )	
7. 나는 동작이 느리고 활동적이지 못하다. ( ) ( )		32. 나는 내자신이 어리고 몸도 약하다고 생각된다. ( ) ( )	
8. 나는 수줍음을 잘 탄다. ( ) ( )		33. 나는 조그만 일에도 눈물이 날 때가 많다. ( ) ( )	
9. 나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마주쳐다 보지 못하겠다. ( ) ( )		34. 나는 조그만 다쳐도 걱정이 많이 된다. ( ) ( )	
10. 나는 다른사람들이 내게 말 시키는 것이 싫다. ( ) ( )		35. 나는 계단을 오르거나 내릴 때에 자주 걸려 넘어진다. ( ) ( )	
11. 나는 오랫동안 한가지에 주의집중하지 못한다. ( ) ( )		36. 나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황하고 머리나 배가 아플 때가 많다. ( ) ( )	
12. 나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산만 한 편이다. ( ) ( )		37. 나는 어리광을 잘 부린다. ( ) ( )	
13. 나는 신경질을 자주 내는 편이다. ( ) ( )		38. 나는 인내력이 부족하다. ( ) ( )	
14. 나는 너무 말이 많은 편이다. ( ) ( )		39. 나는 말을 더듬는 편이다. ( ) ( )	
15. 나는 무례한 행동을 잘 한다. ( ) ( )		40. 나는 나보다 어린아이들과 노는 것이 좋다. ( ) ( )	
16. 나는 조그만 일에도 우울해지고 불내고 싶어진다. ( ) ( )		41. 나는 웬지 쫓기는 듯하고 초조할 때가 있다. ( ) ( )	
17. 나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때를 써서라도 한다. ( ) ( )		42. 나는 자주 피로해 진다. ( ) ( )	
18. 나는 남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 ) ( )		43. 나는 경쟁심이 강하고 남보다 못하면 열등감을 느낄 때가 있다. ( ) ( )	
19. 나는 장난을 잘치고 잡담하는 것을 좋아한다. ( ) ( )		44. 나는 불안하여 안절부절할 때가 있다. ( ) ( )	
20. 나는 거짓말을 잘한다. ( ) ( )		45. 나는 늘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며 행동한다. ( ) ( )	
21. 나는 사소한 일을 가지고도 남과 다투는 일이 많다. ( ) ( )		46. 나는 무서움을 잘 탄다. ( ) ( )	
22. 나는 조그만 일에도 시비를 걸고 남을 괴롭힌다. ( ) ( )		47. 나는 조그만 일에도 예민하게 받아들인다. ( ) ( )	
23. 나는 주위사람들을 헐뜯하고 위협할 때도 있다. ( ) ( )		48. 나는 의심을 많이 하는 편이다. ( ) ( )	
24. 나는 사람 (친구) 을 때리거나 잘 친다. ( ) ( )		49. 나는 어떤일이 닥치면 당황하고 어떻게 하여야 할지 모르겠다. ( ) ( )	
25. 나는 화가 나면 내 물건들을 잘 집어 던진다. ( ) ( )		50. 나는 가끔 엉뚱한 생각에 잠길 때가 있다. ( ) ( )	

부모용 설문지 <I>

본 설문지는 국민학교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가족체계 유형의 차와 정서적 부적응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적절한 교육방법을 모색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본 설문지의 결과는 통계자료로만 사용되며, 본 연구 목적 이외에는 결코 사용하지 않으므로 솔직하고 성의있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아동교육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주대학교  
교육행정 전공

교육대학원  
강승후

\*\*\*다음 설문을 읽고 해당란에 답해 주십시오.\*\*\*

A. 자녀가 다니는 학교: \_\_\_\_\_ 국민학교 \_\_\_\_\_ 학년 \_\_\_\_\_ 반 \_\_\_\_\_ 번 (남, 여) 이름 \_\_\_\_\_

B. 설문지에 응답해 주신분: 아버지 ( ) 어머니 ( )

\* 다음 문항은 부모님께서 자녀를 양육할 때에 어떠한 자세로 자녀를 대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평소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되는 란에 V표 하여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즐겁다.						26.	그릇된 행동은 부모가 고쳐주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2.	자녀의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 칭찬을 해 준다.						27.	자녀에게 유익한 것은 억지로라도 시킨다.					
3.	자녀가 원하는거나 요구하는 것을 자녀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28.	자녀의 공부나 학교 성적이 대하여 재촉한다.					
4.	자녀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29.	친구들을 선택하는데 신경을 쓰고 간섭한다.					
5.	자녀가 질문할 때마다 친절히 응대 준다.						30.	자녀는 부모의 말에 복종해야 한다.					
6.	자녀와 같이 외출하거나 얘기하곤 한다.						31.	그때 그때 기분에 의하여 자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					
7.	자녀와 함께 다니기를 좋아한다.						32.	자녀에게는 꼭 같은 일인데도 어떤 때는 꾸짖고 어떤 때는 묵인한다.					
8.	자녀와 바람직한 관계 맺기를 강하게 원한다.						33.	질하게 꾸중을 하고는 사과하거나 기분을 맞추어 준다.					
9.	자녀를 존중하고 신빙하며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다.						34.	내버려두다가도 때로는 자녀에게 성가시도록 도와준다.					
10.	자녀가 보이는 흥미, 관심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하여서 도움을 준다.						35.	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자녀 혼자서 잘하지 못하면 화난다.					
11.	자녀가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한다.						36.	입으로는 "바보", "불쌍어" 하면서도 내심은 '그래도' 하면서 기대한다.					
12.	자녀가 하는 이야기를 무시한다.						37.	늘 간섭하면서도 자녀가 의논하려면 상대해 주지 않는다.					
13.	자녀에게 "싫다" 또는 "싫다" 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38.	양친중 한분은 너무 물러서 차이가 심하다.					
14.	하찮은 일로 자녀에게 "바보" 또는 "멍청이" 같다는 표현을 자주 쓴다.						39.	양친중 한분이 없을 때 그의 말을 비난하곤 한다.					
15.	자녀의 실수를 참지 못한다.						40.	자녀에 관한 것은 한쪽 분만 전적으로 맡아서 책임을 느낀다.					
16.	속상한 일이 있으면 자녀에게 화를 낸다.						41.	자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단하나의 위안의 존재가 된다.					
17.	바쁘다고 돌보지 않거나 말살대를 하지 않는다.						42.	자녀를 위하는 일이라면 어떤 희생도 한다.					
18.	자녀가 어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43.	꾸중은 하지 않고 칭찬만 하고 있다.					
19.	자녀의 학교성적이나 작품을 하찮게 여기거나 비웃는다.						44.	늘이든 공부든 자녀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상대하여준다.					
20.	자녀에게 "밥을 먹지마라, 내다버린다" 라고 위협을 한다.						45.	나이보다 어린애 같이 취급한다.					
21.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는 겁을 주거나 때려서라도 말을 듣게 한다.						46.	어떤 좋지 못한 짓을 하든지 꾸중을 하지 않는다.					
22.	부모자녀간에는 상하의 구별이 분명해야 한다.						47.	자녀가 부탁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준다.					
23.	자녀의 일과에 대해 엄격한 규칙을 정해놓는다.						48.	자녀가 바라는 것이면 무리를 해서라도 해준다.					
24.	자녀의 일상생활을 일일이 지시한다.						49.	공부나 일은 기분을 살피면서 시킨다.					
25.	어른들의 이야기에 자녀가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50.	무엇이나 자녀분위로 생각한다.					

부모용 설문지 < II >

\*다음 문항은 본 설문지를 가져온 자녀의 성격이나 행동, 그 문제점들을 일반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귀하의 자녀의 행동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시고 느끼신 것을 해당되는 난에 V표를 해주십시오.

(개별적인 처리는 되지 않으니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이 자녀는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26. 고집이 세고 반항적이다.				
2.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혼날까봐 겁부터 낸다.					27. 사람들에게 공격적이다.				
3. 매사에 자신감이 없다.					28. 선생님 말씀에 대들고 불복종한다.				
4. 눈치를 잘보고 쉽게 당황한다.					29. 늘 주의를 요한다.				
5. 위축되어 있는 듯하다.					30. 나쁜 말과 욕을 잘 한다.				
6. 친구들에게 놀림을 잘 당한다.					31. 일을 하면 끝까지 하지 못한다.				
7. 비활동적이고 동작이 느리며 원기가 부족하다.					32. 나이에 비해 어리고 약하다.				
8. 수줍어하고 소심하다.					33. 조그만 일에도 잘 운다.				
9.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마주쳐다보지 못한다.					34. 조그만 상처에도 걱정이 많다.				
10. 다른 사람이 말 시키는 것을 싫어한다.					35. 계단을 오르거나 내릴 때 자주 걸려 넘어진다.				
11. 오랫동안 한가지에 주의 집중 할 수 없다.					36. 특히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황 하고 머리나 배가 아프다고 한다.				
12.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며 산만하다.					37. 어리광을 잘 부린다.				
13. 고집이 세고 뻔뻔하고 신경질적이다.					38. 인내력이 부족하다.				
14. 너무 말이 많다.					39. 말을 더듬는다.				
15. 무례한 행동을 한다.					40.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과 놀기를 좋아한다.				
16. 조그만 일을 자랑하며 잘난체한다.					41. 강박관념을 갖는다.				
17. 생떼를 쓰고 성미가 급하다.					42. 자주 피로를 심하게 느낀다.				
18. 이기적이다.					43. 심하게 열등감을 느끼거나 경쟁심을 갖고 있다.				
19. 장난이나 장담이 심하다.					44. 늘 불안하게 왔다갔다 한다.				
20. 거짓말을 잘한다.					45. 자의식이 강하고 늘 남을 의식하며 행동한다.				
21. 싸움을 잘하며 말다툼이 잦다.					46. 무서움을 많이 탄다.				
22. 사람(친구)들을 잘 괴롭힌다.					47. 매사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23. 주위 사람들을 험악하고 위협한다.					48. 매사에 의심이 많다.				
24. 사람을 때리거나 잘친다.					49. 자주 당황하여 어쩔줄을 모른다.				
25. 자신의 물건을 부순다.					50. 가끔 엉뚱한 생각을 잘 하는 듯하다.				